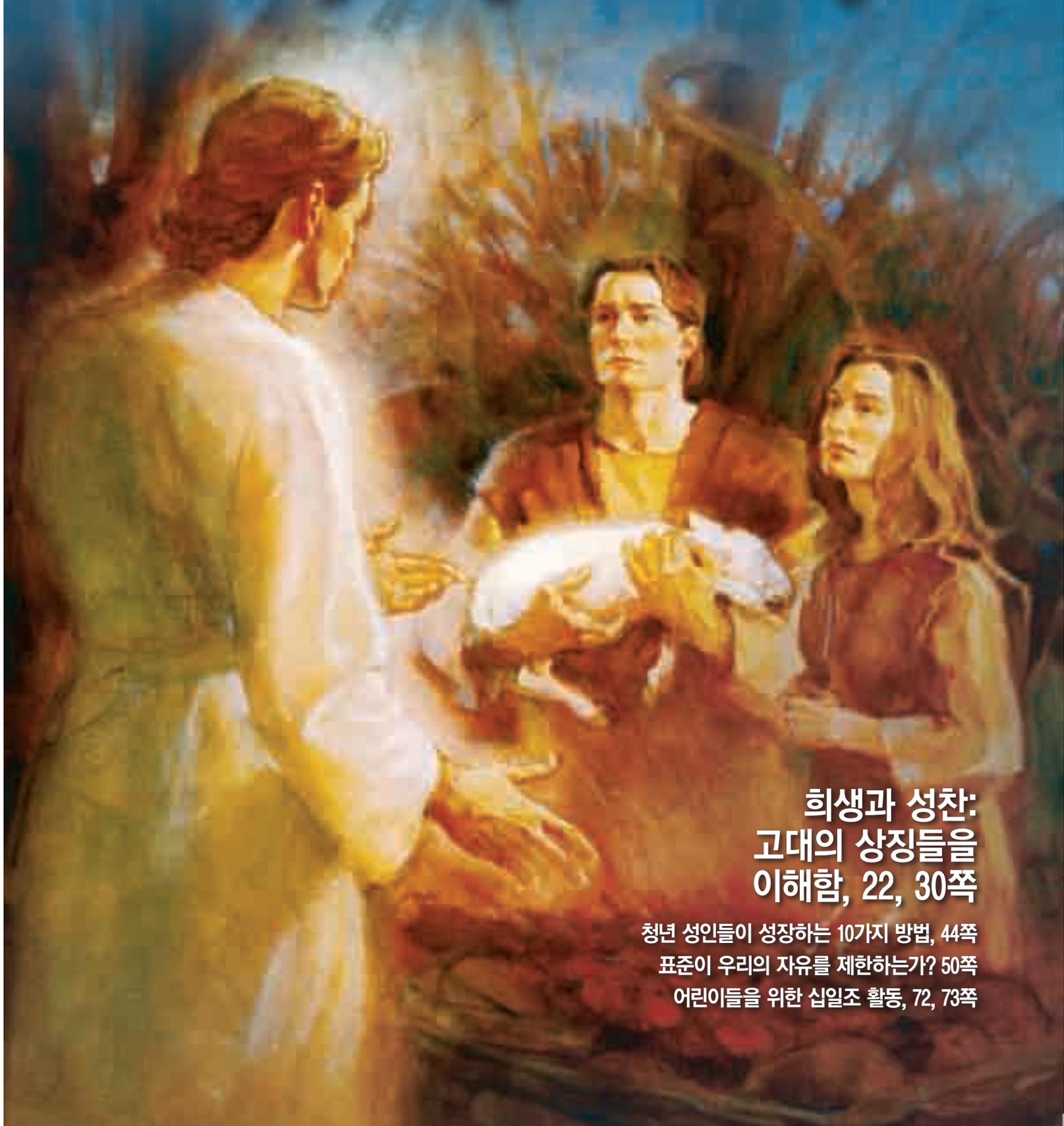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0년 2월호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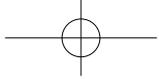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희생과 성찬:
고대의 상징들을
이해함, 22, 30쪽**

청년 성인들이 성장하는 10가지 방법,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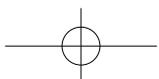
표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50쪽

어린이들을 위한 십일조 활동, 72, 73쪽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해 희생양을 준비하는 일은 연례 유월절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식사를 들고 있을 때, 유월절 희생양이 되실 예수님은 축복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주의 이러한 상징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배우려면, 22쪽의 “그리스도와 구약전서 시대의 문화”와 30쪽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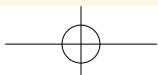




예루살렘, 제임스 페어맨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
일어나[라]”(이사야 52:1~2)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월터 레인

예수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요한복음 14:27~29, 31)





리아호나 2010년 2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영적으로 준비되어-선지자가 주는 제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현명하게 자원을 관리하고 부채를 지지 않음

특집 기사

- 19 성전이 주는 약속
엘렌 로우 시저티
감동님은 우리 가족이 성전에서 빨리 인봉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 22 그리스도와 구약전서 시대의 문화
도널드 더블류 페리
다섯 가지 상징은 구주와 그분의

희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0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취하는 때 안식일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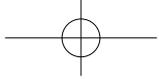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1 교회 봉사: 우리는 언제 봉사해야 하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12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스키 한 짝
크리스티언 크리스텐슨
- 14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중심이십니다

- 16 복음 고전: 성전을 바라보며
존 에이 윌소 장로
- 36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가족을 먼저 생각함
크리스타 슈미츠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표지
앞: 희생 제물을 바치는 아담과 이브, 키스 라슨. 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27), 윌터 레인



청년 성인



42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을 향해 성장함

캐서린 에이치 휴즈

44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인의 지표

웬디 울리치와 크리스틴 에스 퍼커드
청년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열 가지 방법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청소년

46 길에 앉아서서

멜리사 메릴

코스타리카에 사는 두 청소년은 그들의 가족 중 첫 번째로 교회에 들어왔다.

49 그 순간, 주님께서 지켜 주셨다

페르난도 시 파레자

앞에 있던 버스가 납치범들에게서 공격 당하던 순간,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청소년들은 공포 속에 떨고 있었다.

50 질의 응답

우리가 따르는 표준은 실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친구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2 복음 고전: 금고실에 관한 우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54 파티에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야?

잭 톤 탄

친구들의 압력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청남

55 포스터: 십계명은 열 가지 계명이지

56 우리들의 공간

58 축구에서의 목표

티머시 헤르조그

나는 강한 팀에서 활약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일요일에도 운동을 해야 했다.

어린이



60

60 템플 스퀘어 방문: 북방문자 센터 채드 이 퍼레스

62 마리아의 새 옷

앤지 버그스트롬 밀러

교회에 입고 갈 새로운 분홍색 치마! 예쁜 옷이었지만 너무나 정신을 산만하게 했다.

64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이앤 엘 멩검

66 우리들 이야기

67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세요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부모님 없이 강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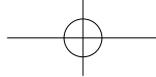
68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며 구속주입니다

샌드라 태너와 크리스티나 프랜코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54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2010년 2월호, 제47권, 제2호
리아호나 0928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패커, 라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힐버그, 요시히코 가꾸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켄 포터 곤드,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레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페라스, 잰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롭나,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렐

선임 비서: 로벨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스코트 엠 무어, 지니 제이 낄슨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23호, 제47권, 제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5,000원,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아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말행 빛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10 Vol. 34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오른쪽: 미우즈의 작가 사진 © GETTY IMAGES

성인



16쪽에 나오는 존 에이 윗소 장로의 "성전을 바라보며"를 읽고 싶다면, 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슬라이드쇼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기사 인용문을 볼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성전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청소년



"금고실에 관한 우화"(52쪽 참조)는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 liahona.lds.org에서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비유를 다룬 비디오를 본다.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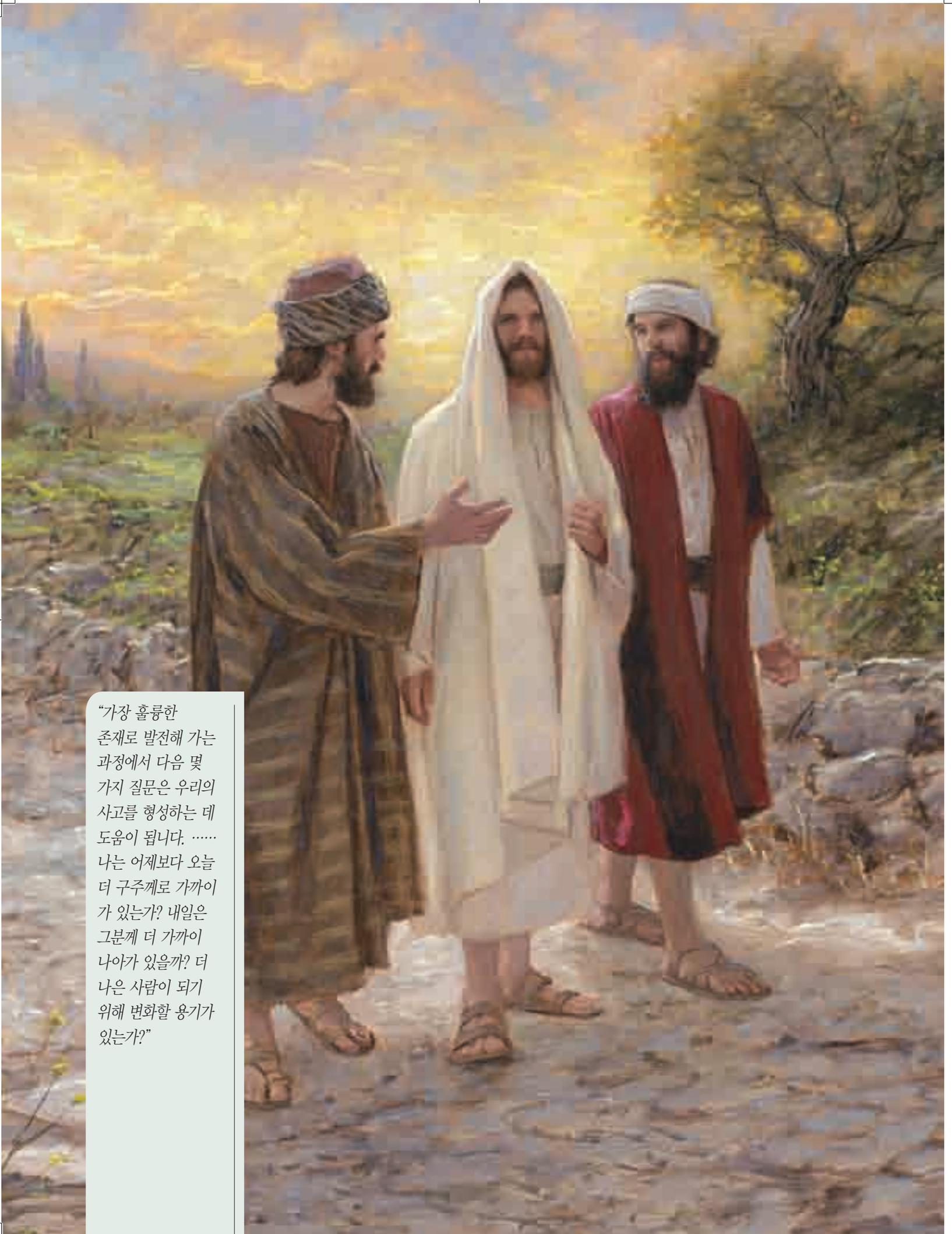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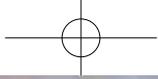


십일조를 내는 것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이다.(70~73쪽 참조) liahona.lds.org로 가서 십일조에 관한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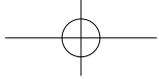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여러분의 언어

온라인 교회 자료를 여러분의 언어로 찾아보려면 www.languages.lds.org를 방문한다.



“가장 훌륭한 존재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구주께로 가까이 있는가? 내일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을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할 용기가 있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영적으로 준비되어 선지자가 주는 제언

신앙의 기초

“깊은 신앙의 기초나 진리를 믿는 굳건한 간증이 없다면 적이 일으키는 사나운 폭풍우나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피해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필멸의 기간은 시험을 받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망가트리고 우리 영혼의 표면에 금을 내서 우리를 점차 허물어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기초와 진리를 믿는 간증이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과거에서 배우십시오.

“가장 훌륭한 존재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인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구주께 가까이 가 있는가? 내일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을까? 더 나은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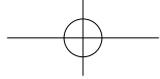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되기 위해 변화할 용기가 있는가? ……

세월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복음에 대한 간증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리아호나

“축복사의 축복문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축복문은 짧거나 길 수도 있고 간단하거나 심오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축복사의 축복문은 말끔하게 접어서 잘 모셔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액자에 넣거나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문은 읽어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축복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문은 가장 어두운 밤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인생에 난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 축복사의 축복문은 여러분의 진로를 정해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개인적인 리아호나입니다. ……

약속된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헤쳐나갈 때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³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언제나 빛을 향해 걸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그림자는 여러분의 뒤에 머물 것입니다. ……

영감을 얻기 위해 경전을 볼 때마다 특정 어구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어구는 “나아오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구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그 **나아오라**는 말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⁴ ■

주

1. “굳도다 그 기초”,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2쪽.
2. “가장 훌륭한 자신이 됨”, *리아호나*, 2006년 4월호, 3, 5쪽.
3. “축복사의 축복: 빛의 리아호나”, *성도의 빛*, 1986년 11월호, 83쪽.
4. 16개 스테이크 노년의 모임, 브리검 영 대학교, 1986년 11월 16일.

본 메시지에서 가르치기

교사, 가장 중요한 부류에는 “숙련된 교사는 ‘오늘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나의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찾도록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고 궁리한다”([1999년], 61쪽)는 내용이 나온다. 이 기사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고, 몬슨 회장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준 다음,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에 관해 발견한 진리를 적어 보게 한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다.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린 것을 함께 나누게 한다.



청소년

축복사의 축복

몬슨 회장은 축복사의 축복을 “여러분의 진로를 정해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개인적인 리아호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축복사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가?



축복사의 축복이란 무엇인가요?

축복사의 축복에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첫째, 이스라엘 가계에서 여러분이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혈통을 밝혀 준다. 둘째, 여러분을 인도해 줄 정보가 담겨 있다. 축복에는 약속과 훈계, 경고가 담겨 있을 것이다.

몇 살이 되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나이는 없지만 이 성스러운 축복의 본질을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개 십대 초반에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고 합당하다면 추천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여러분 지역에 있는 축복사와 약속을 정한다.

축복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자주 읽는다. 축복문은 성스럽고 개인적인 것임을 명심한다. 직계 가족에게는 [축복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해서는 안 된다. 축복사의 축복문에 언급된 모든 축복은 여러분이 보이는 충실함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근거하여 성취된다.

어린이

굳건한 기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진리를 믿는 굳건한 간증”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바로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아래 벽돌에 써 있는 구절들을 경전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커지는 데 이 구절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절 옆 빈 자리에 적어 보세요.



몰몬서 7:5	모로나이서 10:5
교리와 성약 11:12	신앙개조 제10조
에베소서 6:11	모로나이서 7:41
교리와 성약 1:37	

사진: 신화, 크레디그 다이어먼드; 삽화: 스티브 크롬



현명하게 자원을 관리하고 부채를 지지 않음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한다. 자매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자원 관리

“김약하는 생활[에는] …… 자원을 [보존하고], 재정 문제를 현명하게 계획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가정 생산 및 비축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며 정서 면에서 향상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현명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만큼이나 안전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교회 초기 시절, 브리검 영은 자매들에게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고 가내 공업을 하며 회계와 부기, 그리고 기타 유용한 기술을 배우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교육은 항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제가 감독님 몇 분께 워드 자매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자립의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예산 편성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성들은

신용카드 구매로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님들이 말한 두 번째 기술은 요리입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은 일반적으로 더 건강에 좋고 돈도 적게



들며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일조합니다.”²

줄리 비 백,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부채를 피함

“재정적으로 자유롭기 위해 따라야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수입조를 내십시오. ……
- 둘째,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십시오. ……
- 셋째, 저축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
- 넷째, 재정적인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
- 다섯째,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가르치십시오.”³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방문 교사를 위한 도움

이 메시지를 어떻게 각 자매의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을지 동반자와 함께 상의한다. 방문한 자매에게 어떤 자립의 기술을 나눌 것인가?

개인적 준비

말라기 3:10

마태복음 6:19~21

누가복음 12:15

교리와 성약 38:30; 88:119

더 자세한 사항은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물품번호 04007 320)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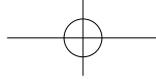
“부채를 지면 소중하고 값진 우리의 선택의지를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만들어 낸 속박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수도 있었을 힘과 시간과 재산을 빚을 갚는 데 소진해 버리게 됩니다. ……

지금까지 진 빚을 갚고 앞으로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하려면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지 좀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살 형편이 안 돼.’ 하고 말하는 때에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욕심을 버리면 삶은 더욱 나아집니다.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1. “복지 사업: 실천의 복음”,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7, 120쪽.
2. “복지와 관련된 상호부조회 회장의 책임”,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2009년), 5쪽.
3. “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1~43쪽.
4.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행하는 신앙”,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2009년), 1~2쪽.



세계의 교회 역사



칠레 수도 산티아고 전경

칠레

1955년 5월, 아르헨티나 선교부는 칠레에 선교사를 보내도 좋다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장로들이 도착했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디 모일(1889~1963) 장로가 첫 번째 칠레 지부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들과 동행했다. 두세 달이 지나기 전에 칠레인의 첫 번째 침례가 있었다. 회원들이 늘고 교회도 그만큼

성장했다. 1961년 10월에는 칠레 선교부가 조직되었고, 1983년에 칠레 회원들은 산티아고에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다. 이 성전은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이 헌납했다. 2006년에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한 산티아고 성전은 헝클리 회장이 다시 한번 헌납했다.

칠레 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56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디 모일 장로는 칠레에 첫 번째 지부를 조직했다.

회원	548,628명
선교부	9개
스테이크	75개
지방부	24개
와드 및 지부	612개
운영 중인 성전	1개

성전이 가져다 주는 화평

성전에 가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감독님은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간 이후에 나는 내가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루이스 메디나 차베스, 칠레

칠레 산티아고 성전 해의 왕국실



성전 집중 조명



스위스 베른 성전

1906년에 운영되던 성전은 네 개밖에 없었다. 모두 유타 주에 있는 성전들이었다. 그 해에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지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 ……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반 세기가 지난 1955년 9월 11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베른 외곽 지역에 유럽의 첫 번째 성전을 헌납했다.

줄리코펜에 위치한 이 성전은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서 있다. 하늘을 찌르는 첨탑의 높이는 43미터이며, 2005년에 모로나이 천사상이 그 위에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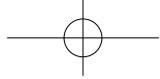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맥케이 회장은 시현을 통해 이 성전을 분명하게 보았고, 그 모습을 교회 건축가인 에드워드 오 앤더슨에게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앤더슨은 그 모습을 종이 위에 그대로 그렸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처음 도면은 수정되었다. 끝으로 수정된 도면을 본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앤더슨 형제님, 이 건 형제님과 제가 보았던 그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최종 도면은 맥케이 회장이 처음 설명한 대로 되었다.



1955년 스위스 베른 성전 헌납식에 참석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가운데)과 교회 지도자들

주

1. “Latter-day Temples”, *Ensign*, 1972년 1월호, 30쪽.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십일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의 어머니는 몇 푼 안 되는 교사 봉급만으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셨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한 채 지낸다는 사실을 알았던 저는 어머니에게 봉급에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십일조로 내시는지 여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델린, 십일조를 내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린 그럴 수 없단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나에게 너희를 키우게 하셨어. 나는 주님의 축복 없이는 너희를 키울 수 없단다. 그러한 축복은 정직한 십일조를 낼 때 얻는 거야. 십일조를 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지.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만 잘 지낼 수 있단다.”

세월이 흐른 후에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그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홀로 되신 어머니로부터 비슷한 간증과 가르침을 얻으셨습니다. 1900년 4월 대회에서 스미스 회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셨습니다.

“홀로 되신 저의 어머니는 대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가 감자를 보관한 창고를 열자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감자로 한 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 꾸러미를 십일조 사무실로 가져 가셨습니다. 봄에는 감자가 귀했습니다. 당시는 어린 아이였지만 제가 짐수레를 몰았습니다. 우리가 십일조 사무실 계단 앞까지 짐수레를 몰고 가서 감자를 내리려고 하는데, 서기 한 명이 나오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자매님, 자매님이 십일조를 내셔야 한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 그는 십일조를 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꾸짖고는 현명하고 분별 있게 일을 하라고 이르면서, 튼튼하고 일할 능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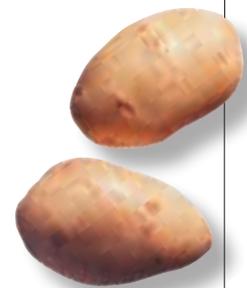
있는데도 십일조 사무실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 형제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제님은 제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만일 제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주님은 저에게서 그분의 축복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저는 십일조를 내겠습니다. 십일조가 하나님의 율법이어서가 아니라 십일조를 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제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과 다른 율법을 지켜서 제가 번영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Conference Report, 1900년 4월, 48쪽)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일조를 낼 여유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일조를 안 내고는 살 수가 없어.”

“십일조”, 리아호나, 1994년 7월호, 33~34쪽 인용.



델린 에이치 욁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왼쪽: 회맹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감자 사진 촬영: © GETTY IMAGES, 코스타리카 회원들 사진 촬영: 미르나 발스 로버투스

코스타리카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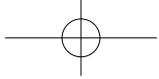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동 쪽으로는 카리브 해,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해 있는 코스타리카는 북음이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차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다음 퀴즈를 풀면서 코스타리카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956년, 코스타리카 회원들과 선교사

1. 코스타리카에 있는 교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ㄱ. 3,800명
 ㄴ. 7,100명
 ㄷ. 25,000명
 ㄹ. 35,000명
2. 코스타리카에서 처음으로 후기 성도 성찬식이 열린 때는 언제일까요?
 ㄱ. 1908년
 ㄴ. 1944년
 ㄷ. 1950년
 ㄹ. 1969년
3. 코스타리카는 처음에 어떤 선교부예 소속되어 있었을까요?
 ㄱ. 브라질
 ㄴ. 멕시코
 ㄷ. 칠레
 ㄹ. 자메이카
4. 코스타리카는 어느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을까요?
 ㄱ. 니카라과와 파나마
 ㄴ.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공화국
 ㄷ. 콜롬비아와 파나마
 ㄹ. 브라질과 니카라과
5. 코스타리카에는 성전이 몇 개나 있을까요?
 ㄱ. 0
 ㄴ. 1개
 ㄷ. 2개
 ㄹ. 3개

정답: 1. ㄹ; 2. ㄴ; 3. ㄴ; 4. ㄱ; 5. 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언제 봉사해야 하는가?

십 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보낸 매우 혹독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그보다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삼분의 일이나 낙제하여 대학원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시기에 헤일즈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부름 때문에 일정이 더욱 빠듯해질까 봐 염려되었다. 헤일즈 장로는 “그때가 제 생애에서 부름이 오는 즉시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극히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헤일즈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다. “밥, 나는 하버드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보다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가 좋아요.” 헤일즈 자매는 두 팔로 남편을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해 주었다. “우린 둘 다 함께 해낼

거예요.”

이 부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은 “둘 다”를 해냈다.

몇 년이 지나 회사 경영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던 헤일즈 장로에게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이 왔다. 그로부터 10년 후, 큰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던 1975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그때마다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름을 받아들였다.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려봤었거든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살면서 ‘우리는 언제 봉사를 해야 할까?’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답은, 그때란 바로 ‘부름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

“하늘의 결혼을 위해 준비함.” 리아호나, 2006년 2월호, 19쪽; 또한 2007년 4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전한 말씀에서 인용.

부름을 주고 받아들임



1. 부름을 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구한다. 영감을 받아 결정을 내리면 위엄

있고 경건한 태도로 올바르게 부름을 주어야 한다. 그 부름과 관련된 모든 사람도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 기꺼이 봉사한다. 우리는 자원 봉사자가 아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3. 부름과 해임이 늘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한다.

4. 남편이나 아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을 때, 둘 중 한 사람은 막중한 직책에서 해임되는 것이 가족을 위해 가장 좋다.

5.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가 쏟은 노력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칠십인, “주님께 봉사함”, 리아호나, 2006년 8월호, 38쪽.



스키 한 짝

크리스티안 크리스텐슨

가 족과 함께 떠난 첫 번째 스키 여행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는 차에 스키 장비를 싣고 하루를 보낼 근처 산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나는 서둘러 짐을 싸느라 스키 하나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욱 기막힌 일은 스키 스틱도 몽땅 두고 왔다는 것이었다.

두고 온 장비를 가지러 다시 집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늘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나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다. 다행히도 나를 불쌍하게 여긴 누나가 스키 스틱 하나를 빌려 주었다.

한번도 스키를 타 본 적이 없는 나는 스키가 하나만 있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드디어 나도 우리 가족이 즐기는 활동에 킁 만큼 컸다는 생각에 실망감은 금세 잊고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형과 누나들은 하나 둘 장비를 갖추고서 스키 타기에 좋은 작은 언덕이 있는 들판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스키가 없는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기 때문이다. 스키를 신은 발도 꿈쩍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래된 나무 스키에 눈이 달라 붙어 무게가 천근만근이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애를 쓸수록 발이 더 깊숙이 빠졌고, 절망감도 더 커져만 갔다. 멀찌감치 앞서 가는 아버지와 형들을 보면서 나는 더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아버지와 형들은 언덕에 이르더니 이내 신나게 스키를 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몇 번 되돌아 오셨다. 그러나 “계속 해 봐. 잘 하고 있어.” 하고 몇 마디 격려만 해 주실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잘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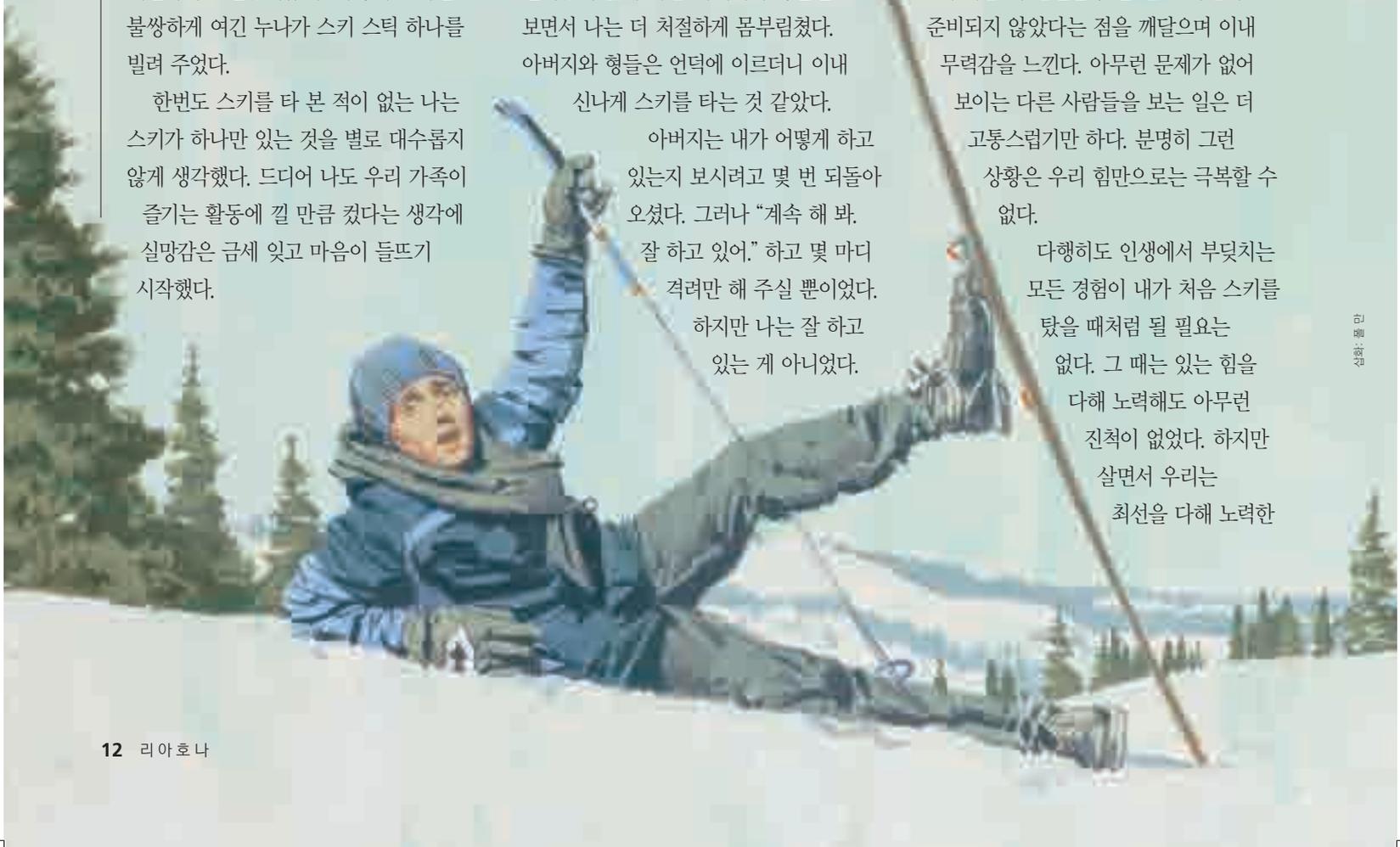
끝내는 언덕에도 못 올라가보고 날이 저물었다. 나의 첫 스키 여행은 실망 그 자체였다.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나 살다 보면 거추장스러운 나무 스키 하나를 발에 달고서 끄꿍대는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역경과 좌절과 불완전함을 겪는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들도 있다. 일시적인 일도 있지만 어떤 것은 평생 지속된다.

우리는 이 현실을 맞을 만큼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으며 이내 무력감을 느낀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일은 더 고통스럽기만 하다. 분명히 그런 상황은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다행히도 인생에서 부딪치는 모든 경험이 내가 처음 스키를 탔을 때처럼 될 필요는 없다. 그 때는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한

김종현





다음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분의 힘과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내가 깨달은 또 한 가지 사실은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숨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 주셨다.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면, 우리가 약점이 있더라도 그 시기는 구주의 은혜와 자비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나는 내 경험에 빚대어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었다. “자, 나한테는 스키가 하나밖에 없다고. 스키가 둘 다 있어도 내 스키 실력은 형편없어. 그렇다면 굳이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아주시며, 그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라.”(니파이후서 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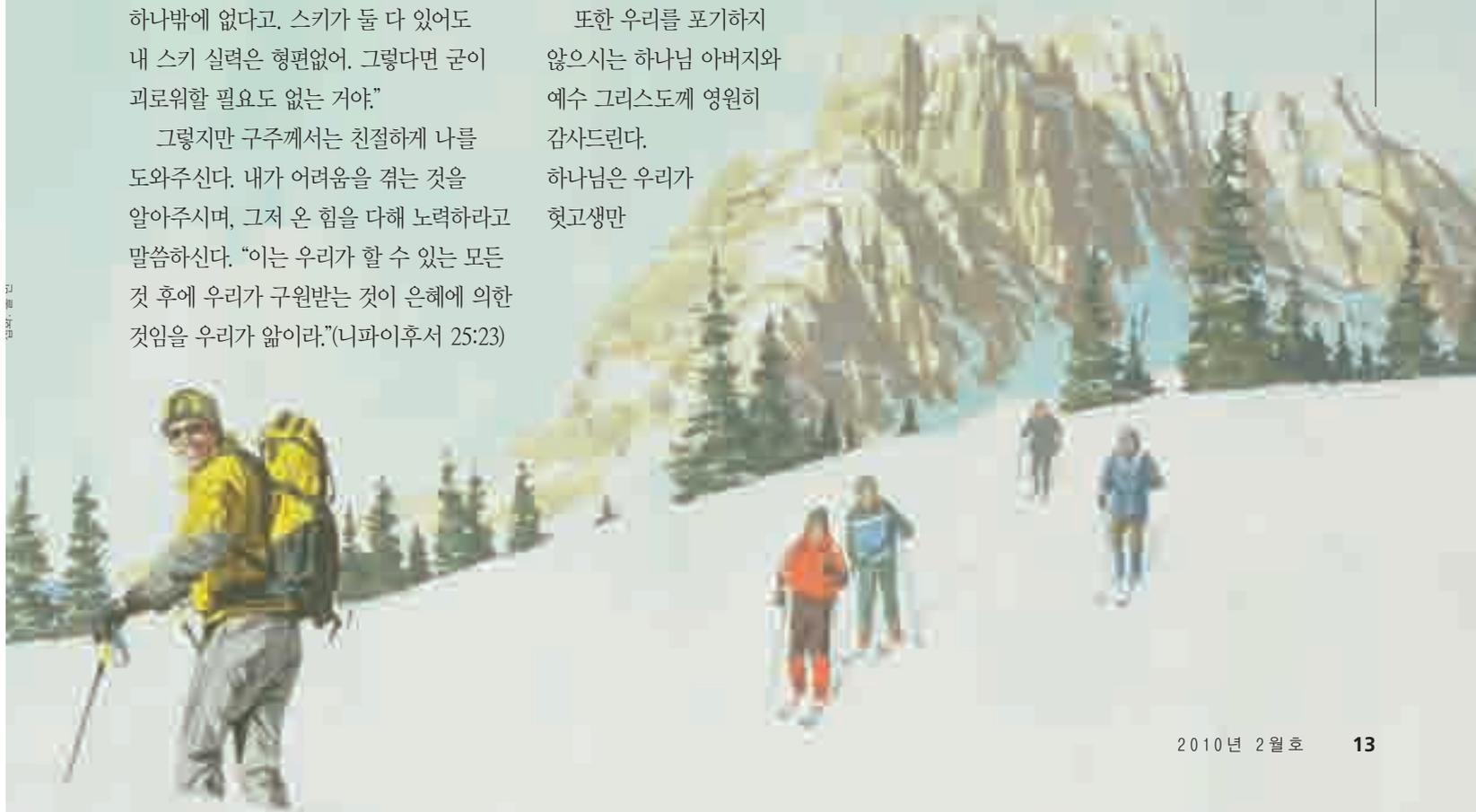
은혜란 반드시 멋진 새 스키 세트를 얻거나 자력으로 목적지에 다다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구주의 보살핌은 그것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다정하다. 그분은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를 도와주신다. 성장하여 좀 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내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그분들이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그분들은 내가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고 더욱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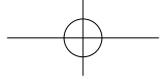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그 실망스러운 경험 이후에도 나는 스키를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계속 스키를 타러 갔고, 대학 때는 스키 수업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되었다. 포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고생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자녀들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주를 보내 주셨다. 그분들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주의 성역과 사명에 대한 여러분의 복음 간증을 기다립니다. 가능한 주제는 속죄, 은혜, 치유, 소망, 회개 등입니다. 500 단어 분량으로 “We Talk of Christ”라는 제목을 달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중심입니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충만한 기쁨을
얻도록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우리는 전세에서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첫째 지체라고 합니다. 천국 회의가
열린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지상에 와서 둘째 지체인 육체를 얻고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를 보[여야]”(아브라함서 3:25)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실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엘마서 42:23~26 참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구주의 속죄와 부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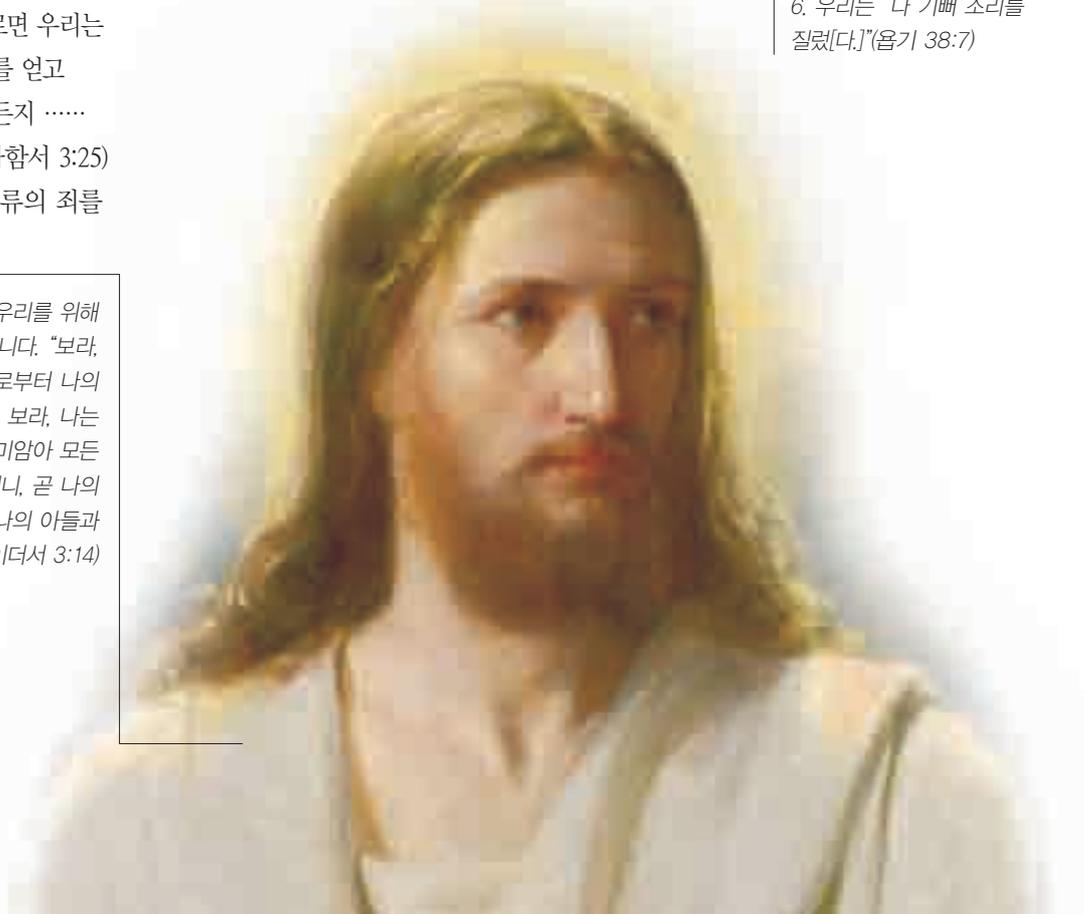
복음원리(2009년), 13~16쪽;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48~59쪽; 신앙에
충실함(2004년), “구원의 계획”, 39~42쪽; 경전
안내서, “구속의 계획”, 28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이더서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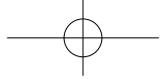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1.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계획을 천국 회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6. 우리는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욥기 38:7)



원형: 엠마오의 그리스도 그림의 부분 확대, 칼 헤인리히 블로흐; 삽화: 로버트 디 바렛, 장레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2.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가 지상에서 지은 죄를 속죄할 구주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아브라함서 3:27) 하고 말씀하셨다.



3.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모세서 4:2)



4. 하나님의 다른 자녀인 루시퍼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1)



5.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아브라함서 3:27)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7.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선택되자 루시퍼는 분노하며 모반을 일으켰다. 천국에 살던 영들 중 삼분의 일이 루시퍼를 따랐다.(교리와 성약 29:36~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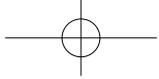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8.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 우리는 첫째 지체를 지켰고, 둘째 지체로 진보하여 필멸의 육신을 받았다.



9.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혜택을 받으려면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신권 권세로 침례를 받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고,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니파이후서 31:16~20; 신앙개조 제3~4조 참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베드로전서 1:18~20)



성전을 바라보며



존 에이 윌소는 1872년, 노르웨이 프리야 섬에서 존 에이 윌소와 안나 케이 가르덴 윌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898년 6월 1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레아 이 던포드와 결혼했으며, 1921년 3월 17일에 사도로 성임되기 전까지 유타 농과 대학과 유타 대학교에서 과학자, 교육자, 작가, 학자로 활동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교회 역사와 교리에 관한 책을 집필했고, 80세를 일기로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기사가 처음 실린 것은 Improvement Era, 1962년 10월호이다.

존 에이 윌소(1872~1952)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은 주님의 집이자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오신다면 성전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지상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모여 지내듯이 합당한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의 집으로 모입니다.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 원리를 재밌고 하나님 왕국의 심오한 진리가 밝혀지는 것을 봅니다. 올바른 영을 지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깊게 참여한다면 복음 지식과 지혜를 풍성하게 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성전은 화평의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는 어지러운 바깥 세상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거리와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오로지 영적인 문제에만 신경써야 하기에, 이곳에서는 영적인 사실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성전은 성약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해 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축복과 인류의 유익을 위해 값진 복음 지식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단순한 의식에 참여한 후에 성전 문을 나설 때에는 복음이 가져오는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겠다고 굳건히 결의하게 됩니다.

성전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 축복은 오직 우리의 충실함에 달렸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고도 고차원적인 신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의식들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1)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2)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3) 이생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전에서는 인생에 담긴 이 심오한 신비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이곳에서는 영적 필요 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영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계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 도움이 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은사와 축복이 넘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건에 적합한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옵니다. 주님은 직접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성령이나 신권 소유자의 형태로 함께하십니다. 바로 그 영으로 그들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지휘합니다. 신앙과 기도로 이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의 집, 신권 가르침을 받는 장소이자 화평과 성약, 축복과 계시의 장소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러한 특권에 감사하는 마음과 성전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슴 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은사와 축복이 넘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건에 적합한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은 누구나 감독에게 성전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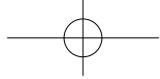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은 성스러우며, 절대 불가사의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실한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성전에서 특권을 누리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성전은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다고 입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의식을 받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의식은 성전에서 이뤄집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죽은 자를 위한 신권 성임, 결혼,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및 현세와 영생을 위한 인봉, …… 복음 가르침, 성역을 위한 여러 형태의 평의회, 기타 복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곳에서 행해집니다. 모든 복음은 이 성전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

성전에 가서 의식을 한 번씩 모두 받았다고 해도 성전 의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의식을 반복하여 받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 의식은 자신을 위해 하며, 그 다음에는 사정이 되는 대로 돌아가신 조상이나 친구들을 위해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죽은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며,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엔다우먼트의 본질과 의미, 책임을 주의 깊게 살피게 해 줍니다. 엔다우먼트에서 맺는 성약을 늘 마음속에서 되새긴다면 인생에서 도전 받는 과제들을 영원한 축복의 영향력 안에서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의식은 교리와 성약 124편



39~41절에 포괄적으로 요약되어 있으며, 이것은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기름 부음과 너희의 씻음과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와 너희의 성화와 레위의 아들들에 의한 너희의 희생 및 너희가 대화하심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의 너희의 계시를 위한 너희 정성의 표시와, 시온의 계시와 기초의 시작 및 모든 시온 주민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우먼트를 위한

성전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흰옷을 입습니다.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너희 규례와 법도는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써 제정되나니, 이 집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을 나의 백성은 언제든지 받느니라.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이다.

이는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져 온 것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내가 나의 교회에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

성전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흰옷을 입습니다.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복장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은행가,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왕자와 거지가 나란히 앉습니다. 영의 아버지인 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한다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성전에서 얻는 영적 이해와 타당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놓입니다.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영이 고양되며 가르침과 용기를 얻습니다.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이해력이 커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증가되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성전 율법과 엔다우먼트 성약은 아름답고 유익하며, 또한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 다 간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인간의 영적 진보를 위해 적절한 순서로 기초를 다졌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셉 스미스가 필멸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권능으로 인도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은 입증됩니다.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면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성전에 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빛과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복음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전으로 향한다면 이 후기에 하나님의 사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회복되었다는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성전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



성전이 주는

약속

엘렌 로우 시저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20대에 저활동 회원이 되었다. 이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으나 남편 역시 신앙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 존과 가정을 이루고 다섯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한 가르침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강요하지 않았지만 존은 나와 함께 교회에 가겠다고 뜻을 같이했다. 그리고 두 아들, 존 로우와 조셉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와드에 참석했다. 선교사들이 존을

가르쳤고, 존은 복음을 받아들여 석 달 후에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여러 보조 조직에서 부름을 수행하며 와드 회원으로서 활발하게 생활했다. 나머지 세 아이들인 헤일리, 테사, 제나도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갔다. 다섯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활동의 날, 스카우트 활동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반면에 10년 동안 존과 나는 세 번이나 성전 준비반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그 수업들이 실제로 성전 방문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가족이 인봉되기를 바랐지만 모든 계명을 지키며 생활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고 여겼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계명도 대부분 순종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아이들은 그 차이점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내 깨달았다. 큰 아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우리 가족은 언제 성전에 가느냐고 묻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찢었다.

그 무렵, 감독님이 우리 부부를 감독실로 부르셨다. 감독님은 우리 가족을 위한 성전 축복을 우리가 왜 실현시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 우리는 성전 추천서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계명에 따라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2006년 시게티 가족 모습. 앞줄(왼쪽부터): 조셉, 테사, 존 로우, 제나. 뒷줄(왼쪽부터): 헤일리, 존, 엘렌

가족 사진: 시게티 가족 제공



전임 감독님들과 마찬가지로 라이딩 감독님도 성전 의식의 중요성과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 조언해 주셨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잠시 침묵에 잠긴 채 앉아 계시던 라이딩 감독님이 부드럽게 말을 건네셨다. “바로 지금이 성전에 가실 때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감독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영은 그 말이 참되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다. 성전은 우리를 영원히 축복할 것이며, 아이들이 성장하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이 인봉되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존과 나는 전에 없이 다급함을 느끼며 감독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성전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을 구체적인 목표와 날짜를 정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온 마음으로 노력했다. 또한 기도와 경전 공부에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맡은 부름에 더욱 열정을 쏟아 봉사했다. 이러한 희생을 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이 찾아왔다.

힘겨울 때는 서로를 격려했다. 어느 날 밤이 생각난다. 내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남편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저서, *The Holy Temple*[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 주었다. 남편이 읽어 준 말씀은 내 시야를 넓혀 주고 두려움을 잠재웠다.

라이딩 감독님과 와드 회원들은



성전이 주는 축복

“성전에 참석하며 주님의 집에서만 집행되는 의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 1 엘리야의 영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조상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 2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 3 여러분의 마음은 조상에게, 조상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향할 것입니다.
- 4 주님의 약속대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38:32 참조]
- 5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얻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19 참조) 하나님과 같이 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20 참조)
- 6 세상을 떠나 휘장 저편으로 간 이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교리와 성약 138:34) 그들을 위해 위대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얻는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지은 우리 조상들을 축복하십니다. 성전에 가면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는지를 자녀와 후손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름과 선택이 확실해지도록 선지자 엘리야가 계시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What I Hope You Would Teach Your Children about the Temple”, *Tambuli*, 1986년 4월호, 6쪽.



계속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한 친구가 Temples[성전들]이라는 소책자를 쥐서 열심히 읽었고, 성전 준비반 교사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정성껏 답하며 친절과 우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많은 와드 회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며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매일 밤, 우리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누일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 가족은 성전에 갈 거야, 하고 자신있게 말해 주었다. 계획한 그 날이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확실한 날짜를 말해 주었다.

감독실에서 인생이 바뀐 그날부터 약 6개월이 지난 1998년 4월 17일, 남편과 나는 다섯 아이와 함께 텍사스 델러스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었다. 많은 와드 친구들이 참석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친구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느끼는 축복들을 우리 가족도 누리기를 얼마나 바랐는가를 깨달았다. 인봉이 우리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남편과 내가 느끼는 가족 인봉의 효과는 참으로 뚜렷했다. 예를 들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아이들이 더욱 그렇다. 부모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옳은 선택을 하고 계명을 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욱 더 단합되었다.

축복은 풍성했지만, 2007년에는 유난히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축복을 발견했다. 그 해 10월 21일 아침, 당시 열일곱 살이었던 쌍둥이들이 교통 사고를 당했다. 테사는 부상이 가벼웠지만 제나는 상태가 위중했다. 제나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혼수 상태였다. 대학생인 세 아이들은 제나가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우리는 제나의 병실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전

우리에게 조언을 주셨던 충실한 신권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 가족이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영의 속삭임을 따른 훌륭한 감독님에게 감사드린다. 성전에 가기까지 늘 우리를 격려해 준 친구들과 와드 회원들,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집 안에 걸어 두었다. 그 사진은 우리의 성전 경험을 되살려주고 우리의 것이 될 약속들을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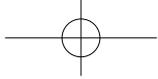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의식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교통사고가 나고 일주일 후, 제나는 눈을 감았다.

제나의 죽음 이후, 우리가 맺은 성전 성약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었다. 우리는 제나가 몹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지만,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가족에 대한 간증에 의지하며 견뎌내고 있다. 우리는 성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집 안에 걸어 두었다. 그 사진은 우리의 성전 경험을 되살려 주고 우리의 것이 될 약속들을 일깨워 준다.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이들도 고맙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성전 의식을 마련해 주셔서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² 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

주

1.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 소책자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집필한 책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소책자는 배부 센터에서 여러 언어로 구할 수 있습니다.(물품 번호 36793 320)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도널드 더블류 패리
히브리어 성경 및 사해 문서 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그리스도와 구약전서

시대의 문화

이 중요한 경전을 주의 깊게 학습하면 구주와 그분이 치르신 영원한 희생,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고대했던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전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때 우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문화적 시각으로 그 귀중한 경전을
바라보려 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천 년 전에 존재하던 사회를
현대 문화의 관점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구약전서의 내용은 이상하고 현실감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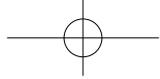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이러한 문화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
시대에는 왜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을 가야
하는지(창세기 29:25~26 참조), 왜 여성이 물이나 짐을
어깨에 지고 나르는지(창세기 21:14; 24:15 참조),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존경의 표시로 왜 낙타나 당나귀에서
내리는지(창세기 24:64; 사무엘상 25:23; 역대하 5:21



참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왜 허리를
굽히는지(창세기 18:2~3; 19:1; 23:7, 12;
42:6 참조), 왜 부모들이 아들의 신붓감을
고르는지(창세기 21:21; 24:4; 38:6 참조),
손님이 주인집에 도착하면 왜 먼저 발을
씻는지(창세기 18:4; 19:2; 43:24 참조)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맥을 무시한 채 현대 문화의 관점이라는 틀
안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그
진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다른 마음의 창을 통해야
합니다.

구약전서에는 고대 선지자와 사람들이 생활하던
문화와 문명에 대해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정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과 언어, 예술, 문학, 종교 단체, 화폐 체계, 음식, 의복, 달력 체계, 결혼 풍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전서를 공부하면서 더 위대하고도 삶을 변화시키는 결실을 얻지 못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힘에 부칠 정도로 어려운 내용까지 공부한다 해도 구약전서는 그저 흥미로운 문화적, 역사적 학습 대상밖에 되지 못합니다.

구약전서는 구주에 관한 첫 번째 정경입니다. 구약전서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초점을 맞춘 문화와 종교 관습에 관한 상징적 또는 예언적인

경이신 후, 예수님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들이닥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요한복음 18:3) 예수님께서 폭도들이 자신을 잡아 결박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불의한 대우에서 받는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요한복음 18:12 참조)

요한이 전한 간증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박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이사도 정월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님은 예수님께서 밧줄로 목이 결박되어 일반 죄수처럼 끌려가셨다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셨습니다.¹

이러한 세부 사항은 사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으신 분이 전한 예언적인

통찰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주의 목을 밧줄로 결박한 모습은 일반 죄수를 결박하던 관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오늘날 성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의 목을 밧줄로 결박하여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에 그러한 모습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의 기원은 구약전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전서에는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삶에 일어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였으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이사야 53:7) 같았다고 예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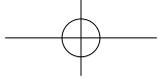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기록이 가득합니다. 여기 구약전서에서 살펴볼 다섯 가지 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더 큰 이해력을 선사하는 종교 관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구주의 목을 밧줄로 결박한 모습은 양이나 염소가 밧줄로 목이 결박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일반적인 관행을 떠올리게 한다.



청소년



구약에 나오는 십대들

구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십대 시절에 어떤 업적을 성취했을까?

자넷 토머스
교회 집사

물 론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성인이 되어 성취한 일들을 기억하지만, 때로는 이 훌륭한 주인공들이 청소년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일곱 가지 예를 살펴보자.

모세

모세는 아기였을 때 갈대상자에서 발견되어 궁정에서 왕자로 성장했다. 고급 교육을 받은 모세는(사도행전 7:22 참조) 십대에 애굽어를 쓰고 읽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사무엘

사무엘의 출생은 주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손에서 자랐다. 사무엘은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며 성장기를 보냈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사무엘은 밤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사무엘상 3:4~10 참조) 소년 사무엘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며 선지자가 되는 준비를 시작했다.

다니엘

가족과 백성들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시중을 들도록 불러 갔다. 이 십대 소년들은 왕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고기와 술을 취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소년들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축복으로 지식과 능력을 받았다. 다니엘 1장 20절에서 왕은 이 네 소년들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희생 제물의 가죽 벗기기

레위기에는 수송아지를 도륙한 후에 가죽을 벗기는 종교 관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을 것이요”(레위기 1:5~6)

여기서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분명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희생 제물을 죽인 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나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히브리어 단어 psht는 “가죽을 벗기다”로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옷을 벗기다”(창세기 37:23; 사무엘상 19:24; 에스겔 16:39; 44:19 참조)라는 뜻입니다.

가죽이 벗겨진 희생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옷, 즉 의복과 “속옷”이 가차없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요한복음 19:23~24)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흥포를 입히며 그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분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겠습니까!”²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원문: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 테드 해닝가; 삽화: 데이비드 멜란; 데이비드 멜란;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 조지 소머;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소년 사무엘, 해리 앤드루스; 왕 앞에 선 다니엘, 사이몬 베터;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실 채찍질을 상징합니다. 로마 통치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질 당하시며 살 곳곳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마태복음 27:26 참조)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베드로전서 2:24)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이나 그 후에 손과 팔목에 못박하신 것을 두고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야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기 700여 년 전에 그 일을 예언했습니다. 구주에 대해 이야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이사야 50:6)

찢린 떡

몇몇 구약전서 구절에는 성전 예배자들이 먹거나 희생 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태워 버린 떡과 비슷한 특별한 음식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출애굽기 29:2; 레위기 2:4; 신명기 6:15 참조) 히브리어로 이 떡은 halah(복수 형태는 halot)라 하는데, 이는 “찢린” 떡(“찌르다”는 히브리어 어근인 hll에서 온 것임)을 나타냅니다. 경전의 다른 곳에서 그 어근(hll)은 찢는 것, 특히 칼이나 화살로 찢린 자를 나타냅니다.(사무엘상 31:3; 예레미야애가 4:9 참조)

우리는 이 떡이 왜 halah라 불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올려 놓기 전에 반죽을 찢거나 구멍을 냈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찢린 떡은 “생명의 떡”(요한복음 6:35)이라 불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찢린 떡이 고대의 희생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초기 그리스도 시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경륜의 시대 성도들도 떼어 낸 떡을 취합니다.



찢림을 당하신(요한복음 19:34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나타냅니다. 이야야와 시편의 저자는 모두 속죄의 일환으로 예수께서 찢림을 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이사야 53:5) “[그들이]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시편 22:16)

찢린 떡이 고대의 희생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초기 그리스도 시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경륜의 시대 성도들도 떼어 낸 떡을 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상한 몸을 상징하는 성찬 떡을 떼신 사실을 잘 압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6:26)

떼어낸 떡이 예수님의 찢긴 몸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현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중 테일러(1808~1887)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여 떡을



더 그렇습니다. 짙은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기름이 두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구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기름부음을 받으신 자로, 올리브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불리는데, 이는 각각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올리브 기름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짙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겪으신 일을 상징합니다. 그분도 역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마태복음 26:67)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마가복음 14:65)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누가복음 22:63)

김볼 회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도 그분은 조용하고 침착하고 거룩한 위엄으로 견디셨습니다. 단 한

짙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겪으신 일을 상징합니다. 그분도 역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마디도 분노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뺨을 치고 구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겁내지 않고 참으셨습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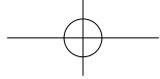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대우받으시는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이사야 50:6)

안수례

특정 희생 동물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고대 희생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수례에 참여했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레위기 1:2, 4)
- 장로: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레위기 4:15)
- 족장: 족장이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레위기 4:24)
- 공동체 구성원: “평민의 한 사람이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레위기 4:27, 29)
- 대제사: “아론은 그의 두





구약전서 학습 지도서 활용

“저는 학습 지도서를 매주 활용합니다.”라고 트윌라 해리스는 말한다. 그의 지도서는 기록해 둔 메모로 가득하다. “지도서에 나온 경전 구절을 읽고, 질문에 답하며, 새로 배운 내용을 자녀와 손자손녀들과 나눕니다.”

해리스 자매는 구약전서 반원 학습 지도서가 복음을 배우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많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고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전과 더불어 학습 지도서를 활용하여 복음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일요 공과 시간에 도움이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경전 읽기 과제
2. 원활한 반원 토론을 이끌 질문
3. 구약전서의 내용을 오늘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

구약전서는 적어도 스물아홉 명의 선지자와 다른 영감 받은 지도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지도서는 각 장을 선별해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과 더불어 그들의 예언과 가르침을 집중 조명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전서와 값진 진주에 있는 아브라함서와 모세서를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학습 지도서를 제작 의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경전을 공부하고 읽을 때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셨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전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강림, 그리고 속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The Message of the Old Testament”, *A Symposium on the Old Testament*[1979년], 5쪽)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레위기 16:21)

- 레위인: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 레위인을 속죄하고”(민수기 8:12)
- 주님은 다양한 희생 제물에 안수례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에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가 포함됩니다.(레위기 1:4; 3:1~2; 4:3~4; 24:10~16)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의식은 대리의 율법,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동하는 권한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 경우에 안수는 사람의 죄를 희생 제물의 머리에 상징적으로 옮깁니다. 즉, 성경학자가 언급했듯이 안수는 “죄인과 희생 제물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죄인의 삶을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⁷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안수가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의를 염소 머리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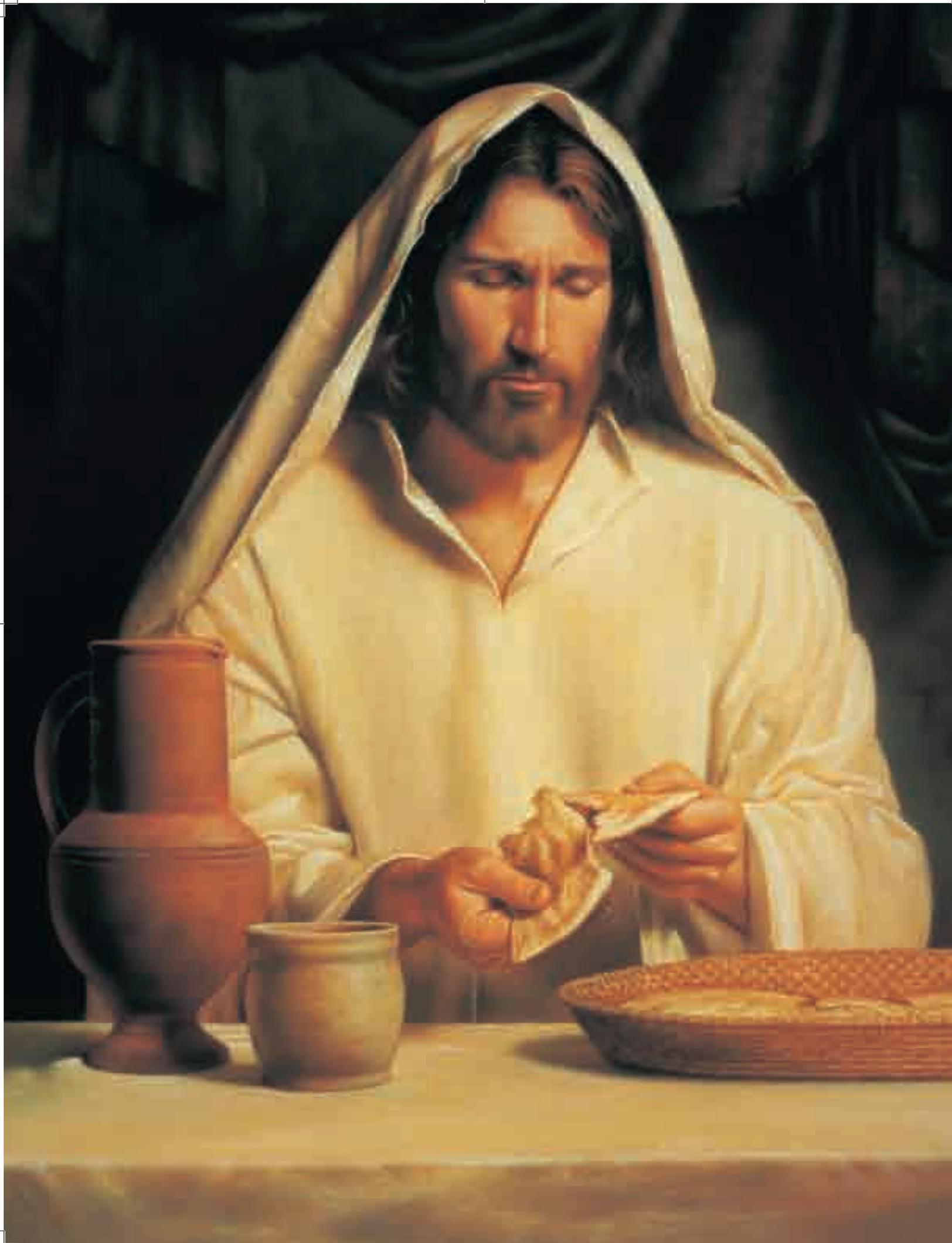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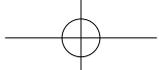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희생 제물은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죄와 불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자 표상입니다.

구약전서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구약전서의 의미를 충만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상징 체계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경전을 주의 깊게 학습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희생,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고대했던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주

1. 브루스 알 맥콩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깃세마네의 힘”,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9쪽.
2. 스펜서 더블류 김볼, “나사렛 예수”, *성도의 빛*, 1985년 4~5월호, 2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년), 39쪽.
4. 윌리엄 게제니우스,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번역. 에드워드 로빈슨(1977년), 510쪽.
5.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510쪽.
6. *성도의 빛*, 1985년 4~5월호, 2쪽.
7.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편집. 지 요하네스 보터렉과 그 외(1995년), 15 vols., 7:295.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칠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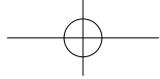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 주 오래 전, 젊은 시절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일입니다. 몬트리올 지부의 성찬대 앞쪽에는 어느 장인이 솜씨 좋게 새겨 넣은 성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구절에 저는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라는 성구였습니다.

그 작은 지부의 아론 신권 형제들은 옷차림에서나 태도에서, 이 가장 뜻 깊고 성스러운 의식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성찬이 전달될 때, 그 성찬대 앞에 새겨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성구를 떠올리며 저는 여전히 감명을 받습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경건함을 보이고 이 성스러운 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성찬식 모임에 몇 분 더 일찍 도착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준비된 상태로 성찬을 취하며 우리는 바울의 권고를 따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린도전서 11:28)



성찬을 제정함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을 상징합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규정된 방법으로 집행하고, 합당한 후기 성도 회원들이 취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성찬 준비와 축복, 전달은 엄숙한 자세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진행됩니다.

절정의 시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시점에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하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린도전서 11:23~25)

더 높은 율법인 새로운 성약이 제정되면 옛 율법인 모세 율법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찬 의식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1:26; 교리와 성약 27:5~14 참조).

최후의 만찬을 위해 희생양을 준비하는 일은 연례 유월절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식사를 들고 있을 때, 유월절 희생양이 되실 예수님은 축복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마태복음 26:26 참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세계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손과 발에 난 못 자국을 보여 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같이 하라.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제3니파이 18:6~7)

또 잔에 [담긴 상징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 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제3니파이 18:11)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 하시더라.” 경전에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취하고 나서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제3니파이 2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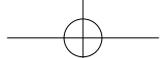
“세상이 조직되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분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순종에 근거하여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리라는 점을 아셨으며, 또한 우리가 맺은 성약과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정기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물론 성찬을 취하는 목적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낸 그리스도, 시몬 두이, © 2003 FSI



합당하게 취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조직되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분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순종에 근거하여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리라는 점을 아셨으며, 또한 우리가 맺은 성약과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정기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

물론 성장을 취하는 목적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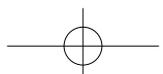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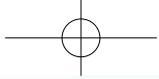
만일 성찬을 별 생각 없이 취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젊은이들에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 [합당치 못하게] 마시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가르쳤습니다.(고린도전서 11:29, 30)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제3니파이 18:29)

“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입술에 담을지
조심할지어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입술에 담을지
조심할지어다”(교리와 성약 63:60~61)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장소에서[의] 성스러운 순간”²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자주 성찬을 취함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기념하여 [성찬을]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20:75).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구주께서는 우리를 결핍되고
연약하고 병든 채로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사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생명의 떡”을 취하고
“생수”(요한복음 4:10; 6:35)를 마시며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합니다.

1830년 4월 6일, 이 경륜의 시대 최초의 성도들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성찬식을 첫 공식 모임에 포함시켰습니다.(교리와 성약 20:75~79

참조)

교회 회원인 우리는 오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언하며,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 리하이가 아들 야곱에게 전한 다음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니파이후서
2:8)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 마르지 않도록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주 안식일에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취할
때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온전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엘 톰 페리,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9~40, 41쪽.
2. 엘 톰 페리,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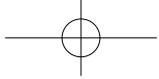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성찬을 취할 준비

- 이 의식의 성스러운 본질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신발을 신는 것을 비롯하여 올바른 복장을 합니다.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식 모임에 참석합니다.
-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 기도의 영을 비롯해 온유와 헌신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 구주의 사명을 떠올리고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한지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잠깁니다.
- 성찬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책이나 잡지를 읽지 않습니다.
- 소곤소곤 이야기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의식에 참여하는 신권 소유자들은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이어야 하며, 합당하고 경건하며 엄숙하게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합니다.
-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 기도문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찬식과 성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7~20쪽.



가족을 먼저 생각함

크리스타 슈미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족 일정표를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까?

학교 자원봉사에, 아이들을 여러 운동경기와 클럽에 데려다 주는 일에, 항상 빠듯한 일정에도 가족들 식사 챙겨 주는 일에, 게다가 매일 새벽반 세미나리 공과까지,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남편도 직장 다니랴, 교회 모임에 가고 와드 회원들 방문하랴, 축구팀 지도하랴 늘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우리는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서 활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지만 뭔가가 빠져 있었다. 무수한 활동들을 잘 해내는 다른 가족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 정신 없이 지내는 사이에 우리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원하고 필요로 했던 일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안 돼”라고 말해야 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며 그 문제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경전을 펼쳤다. 물문경을 읽다가 베냐민 왕이 남긴 다음 가르침을 발견했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모사이야서 4:27)

우리가 원하던 상은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단합하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했다. 그러나

지금 같이 바쁜 일정을 더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뭘 바꿀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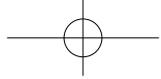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닌 듯 했다.

우리는 부지런했지만 쳇바퀴만 돌고 있었다. 필요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만 온통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생활은 그렇게 흘러갔다. 부름을 받으면 신경을 써야 했고, 더러운 그릇은 설거지를 해야 했고, 활동에 가려는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어야 했다. 매일 세미나리반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면서 현대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지혜에서 내가 추구했던 답을 조금씩 찾게 되었다. 나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밤을 하라고 권고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발견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손질해서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세상 사람들이 온전한 삶으로, 진정한 가족 생활로, 가족과 상호 의존하는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올바른 가정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사회 생활과 직장 일을 하는 어머니를 가정으로 데려오고, 아이들이 마냥 재미만 추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쁜 삶에서 첫 불상사의 하나는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얼마 후, 감독님은 성찬식 모임에서 제일회장단의 서한을 읽어 주셨다. 그것은 활동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이 가정의 밤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남편과 함께 그 권고에 대해 상의하면서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재미는 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과도한 활동들을 정리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활동 목록을 만들어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개선이 필요함”과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목록을 보며 궁리하던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였다. 식제를 고려하던 대부분의 활동이 운동경기와 클럽 같은 아이들 활동이었다. 그래서 가정의 밤을 열어 이 문제를 아이들과 의논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우리가 운동 경기 팀을 지도하거나 클럽 의장직을 맡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가족 클럽”이었다.

우리는 기존 활동에서 맡은 책임을 완수하고 더 이상 새로운 활동에 가입하지 않았다. 교회 일이 없는 날 밤이면 남편은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큰소리로 “오늘밤은 가족 클럽이다!”라고 외친다. 그러면 아이들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둘러 숙제와 할 일들을 마친다.

우리 아이들은 색다른 일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아빠와 함께하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부품들을 한데모아 컴퓨터를 조립했다.

이따금 가족들이 연장 도구를 허리에 차고 집 주변에서 뭔가를 고치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에게 함께할 시간과 힘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을 위해 더욱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할 여유를 얻었다. 가족 클럽은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거나 이런 저런 활동으로 가족이 흩어지거나, 외식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패스트푸드를 먹고 생활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지 않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척 즐기다 보니, 아이들도 더 이상 다른 활동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정의 밤과 매일 하는 가족 기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는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며, 가족 오락 활동도 한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히 활동도 더 늘어나리라는 점을 안다. 필요할 때는 활동을 늘리겠지만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지금, 우리는 가족 클럽의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 ■

주

1. 스펜서 더블류 김블, “Home: The Place to Save Society”, *Ensign*, 1975년 1월호, 4쪽





밧줄을 끊어!

열두 살 때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무척이나 쌀쌀했다. 아빠가 배고픈 말들에게 건초를 주려고 하니 트랙터에 시동을 걸라고 하셨다. 바깥 공기가 너무 찬 탓인지 트랙터는 몇 번 시동이 걸리는 듯 하더니 이내 배터리가 나가버렸다.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블루에게 안장을 엮고 썰매 줄을 안장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트랙터에 다시 시동이 걸릴

때까지는 건초 꾸러미 및 개를 썰매에 실어서 말들에게 갖다 줄 생각이셨다.

혈기왕성한 종마 블루는 생의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 힘이 넘치는 훌륭한 말이었다. 그날 아침에 맘껏 달리고 싶어하던 블루가 얼마나 날뛰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41킬로그램짜리 건초 꾸러미 두 개를 썰매에 실었다. 아빠가 블루 위에 올라탔고, 우리는 출발했다. 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썰매 뒤에 서서 걸었다.

이윽고 겨울 방목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 다다랐다.

그 좁은 길을 별 탈 없이

삼분의 일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였다. 눈발이 몹시 흩날렸다. 썰매 앞쪽에 눈이 쌓이는 것이 보였다. 안장 띠를 블루 가슴 쪽으로 단단히 묶었기 때문에 블루는 숨 쉬기가 곤란해졌다. 돌연 블루가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블루는 가슴을 누르는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두세 번 이리저리 빙빙 돌았다. 황급히 말에서 내리려던 아빠는 말 옆구리에 치이고 말았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블루는 쌓인 눈 아래 빙판에 미끄러졌고, 아빠는 블루 아래에 깔려 버렸다.

아빠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칼 삼촌네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소리치셨다. 그 말은 울타리 두 곳을 기어서 지나고 널찍한 방목장을 가로질러 달려야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삼촌네로 달려가려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 말고 밧줄을 끊어!”

급히 그 음성에 따라 나는 호주머니에서 보이스카우트 단도를 꺼냈다. 그것으로 말을 잡아맨 줄을 몇 번 내리치자 갑자기 블루가 비틀거리며 걷더니

아빠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소리치셨다.



출처: 더나은미래



곧 달아났다. 밧줄이 끊어지자 아빠는 더 이상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 아빠가 감긴 줄에서 풀려나셨다. 나는 아빠 곁으로 달려갔다.

의식이 돌아온 아빠는 일어서더니 괜찮다며 나를 안심시키셨다. 우리는 블루를 찾아 나셨다. 썰매 앞쪽에 쌓인 눈을 치우고, 밧줄을 다시 매고는 다시 말 방목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말들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에 나는 “왜요?”라고 묻지 않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을 달려가 삼촌에게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삼촌이 와서 도왔다 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때맞춰 영의 음성이 내게 찾아왔던 것이다. ■

제럴드 지 호드슨, 미국 유타 주

주님과 맺은 약속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겪었다. 부모님이 헤어지고,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어머니의 한 친구 분이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소개해 주셨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을 마련하셨으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절대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된 어머니와 누이들, 그리고 나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 가족은 복음에 대한 간증이 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강한 소망도 생겼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었기에 선뜻 결정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내가 필요했다. 더군다나 여러 곳에서 직업 제의가 들어왔고 몇몇 대학에서도 입학 허가서가 왔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경전을

읽다가 나는 다음 구절을 보게 되었다.

“그런즉 네 가족이 살리라.

보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잠시 동안만 그들에게서 떠나 나의 말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리라.”(교리와 성약 31:5~6)

이 구절을 읽자마자 영이 강하게 임했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았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선교사 부름장이 왔다. 전임 선교사로 성별되기 전에 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자신을 바쳐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 드렸다. 내가 간구한 유일한 축복은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선교사로 나간 첫 해는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동반자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일했다. 그 즈음에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에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는 순간, 하나님께 다짐한 나의 약속이 생각났고, 그분께서 교리와 성약을 통해 주신 약속도 기억해냈다. “나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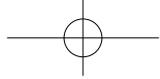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선교사로 나간 첫 해는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동반자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일했다. 그 즈음에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에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선교사로 봉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과 나는 여전히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지낸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에 충실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충실하시다는 것을 안다. ■

후안 마누엘 마가냐 고메즈, 멕시코 게레로 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말인가?

서른 살에 침례를 받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일이다. 페루 피우리 지역에 있던 지부 회장님께서 내가 아론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접견을 하자고 제안하셨다. 접견을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신 조지 가르시아 회장님은 기도를 하신 후, 이렇게 질문하셨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라고 나는 대답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역시 “네”라고 대답했다.

“순결의 법을 지키십니까?”

“네”

그 질문까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십니까?”

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마음 속으로는 선교사들이 십일조에 대해 가르칠 때 보여 주었던 그림을 떠올렸다. 선교사들은 수업에서 십분의 일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지부 회장님의 또 다른 질문이 들렸다. “선교사들이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나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지 않은 거죠.” 하고 나는 대답했다.

잠시 후, 가르시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안됐군요. 하지만 신권을 받으려면 십일조를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지부 회장실을 나오는 내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날 늦게 나는 십일조의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십일조를 내지 않아 당신의 것을 도둑질 한 것이라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일조를 내지 않아 당신의 것을 도둑질 한 것이라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일조를 내지 않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서 지부 회장님께 접견을 요청했다. 나는 지부 회장님에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일조를 내겠다는 내 결심을 받아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일요일에 실제로 십일조를 냈다. 나는 지부 회장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거지요?”

지부 회장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 “네, 오늘 제가 형제님께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집사 직분에 성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십일조와 십일조를 냄으로써 받는 풍성한 축복에 관한 강한 간증이 있다. 35년 전, 그 일요일에 했던 접견 이후 수많은 접견을 했는데 지도자들께서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지 질문하면 그 이후로는 기쁘게 “네”라고 대답한다! ■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페루 피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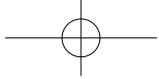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모두 제 아이예요

“모두 맥의 아이인가요?”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식료품 가게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에 있던 여성이 그렇게 질문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일곱 살과 다섯 살 난 딸 아이들이 꼭 찬 카트 양 옆에 서 있었고, 걸음마를 하는 아이는 카트 앞에 달린 의자에 앉아 기분 좋게 양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4개월 된 아기는 아기 띠에 묶여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네, 모두 제 아이예요.”

남편과 내가 가족을 이루면서부터 자녀를 몇이나 낳을지, 또 언제쯤 낳을 것인지는 종종 공공연한 질문이 되었다. 첫



아이는 논리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렇다. 아직 이십 대 초반이었던 우리는 막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은 “직장다운 직장”을 찾고 있었다.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고 보험도 없었다. 하지만 영들이 우리 가정에 오고 싶어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갔다.

건강하게 임신하여 우리는 예쁜 딸을 얻었고, 고정적인 직업을 찾는 축복도 받았다. 나는 바깥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딸 아이와 그 뒤에 생긴 세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모든 자녀가 하나같이 태어날 때가 되었다는 성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왜 그렇게 터울도 크게

두지 않고 많은 아이를 낳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을 쏟아 부으며 내 판단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왜 이렇게 자녀가 많죠?” “한 아이를 열여덟 살 때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모르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관심과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나요?” 물론 “아직도 더 낳을 생각이신가요?”라는 질문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자녀를 더 낳고 싶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몹시 힘들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아이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달래고, 코를

닦아 줘야 하는 시기가 있다. 그것도 동시에 말이다. 그럴 때면 내가 제정신인지, 지금 뭘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 날은 세상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다.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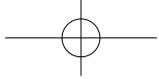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에 비추어 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가족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나는 어머니의 본분을 배우기 위해 매일 과거와 현재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복음 원리에 의지한다. 이 본분은 확실히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모든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친절한 자비로, 그 힘겨운 날들이 빛나는 기쁨의 시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식료품 가게에서 만난 그 여성이나 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온갖 정성을 쏟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네, 모두 제 아이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

카슨 에이치 크래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 람들은
왜 그렇게
터울도 크게 두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았는지 물으며
내 판단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주님을 향해 성장함



캐서린 에이치 휴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함

저는 몰몬경을 다시 읽는 동안 힐라맨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서에서 힐라맨의 아들들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 장자에게는 니파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고, 막내에게는 리하이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겼더라.”(힐라맨서 3:21)

이 두 소년은 성인으로 자라면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충실하게 남는 일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가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세대일지라도

영적인 열망을 느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성장하여 양육과 보살핌을 받은 처소를 떠납니다. 저는 집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학교 교사 일을 시작하고 부모님이 이사를 하신 무렵에야 성인의 생활을 시작하여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종종 이 같은 변화를 겪는 시기에 우리는 복음에 전념하는 경험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늘 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신성한 본질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영이 삶을 주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몰몬경에 나오는 백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의한 삶은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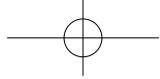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니파이 앞부분을 보면 니파이인 대부분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의로웠던 레이맨인들도 마찬가지로 부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몰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며 점차 나이 들어 강하여져서 스스로 행할 줄 알게 되어서는 이끌려 가서

또 이같이 레이맨인들도 고난을 받으며, 자라나는 세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과 의로움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라.”(제3니파이 1:29~30)

우리는 “스스로 행할 줄 알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문구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며 선지자들이 피하라고 경고한 욕망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과 꾀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점에서는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믿지 않음에 빠져들거니” “고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할지 선택해야 합니다.(제4니파이 1:38)

이러한 유혹에 희생되지 않도록 한 번에 효력을 발휘하는 묘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몸이 자라고 발달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도 성장해야 합니다.
영이 우리 삶을 주도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한 후에 계속 그 길에 안전하고 충실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4니파이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남아 간증을 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하엿습니다.”(제4니파이 1:12) 이 방법 중 첫 번째 요소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위안과 확신을 주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때때로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 있기도 하지만, 앨마서 34장 27절에서

앰올레크가 가르쳤듯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와 더불어 금식을 하면 하늘을 직접적이고도 의미 있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때때로 금식은 질병으로 약화된 신체에 건강과 힘을 회복시켜 주고, 마음을 열어 궁핍한 사람들을 돕게 만듭니다. 기근과 가뭄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식은 항상 평화를 불러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이해하신다는 평화를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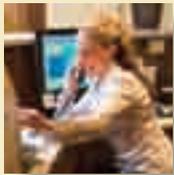
충실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 중 두 번째 요소는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시간과 자원 면에서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에 이르는 전 세계 충실한 성도들은 매주 안식일에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방법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매주 성찬을 취하여 주님과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성전 의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맺는 성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도사리는 악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습니다.

금식과 기도,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전 참여(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경전 공부, 이 모두는 우리가 충실하고 확고하게 남아서 주님을 향해 성장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

2008년 4월 29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한 말씀. 영어 전문을 보려면 <http://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를 방문한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인의 지표

웬디 울리치와 크리스틴 에스 패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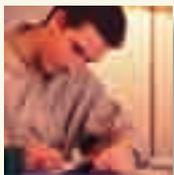


웬디 울리치 박사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심리학자이며, 크리스틴 패커드는 면허를 받은 전문 상담가이다. 이 두 사람은 청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청년 성인들을 둔 부모들이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를 드릴 때 조셉 스미스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교리와 성약 109:15)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후기 성도 청년 성인들을 상담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성장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모든 청년 성인은 어른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여 그저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몇 가지 결정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으로서 사명감을 갖는다

사명감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인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 보고, 질문을 던지고, 경험을 쌓기 위해 초보 수준의 직업에 자원하거나 일을 해 보고, 즐겁고 활기를 돋우는 활동에 참여해 보면서 교육이나 직업에 대해 확신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에 마음을 쏟아본다면 능력이 커지고 점점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합니다.

2. 개인적인 목표와 일과를 수립한다

성인은 목표를 세우고, 수양을 하며, 여행을 해 보고, 일과를 수립하고, 가장 확고한 가치관과 일치하는 인생 행로를 결정하면서 만족을 배웁니다. 목표와 일과는 사람들이 의기 소침해지거나 유희에 빠지지 않게 하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권태 사이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성취하는 법을 배우면서 단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바람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신체를 관리한다

치아와 건강을 관리하고, 두발 손질, 운동, 영양식, 규칙적인 수면을 잘 계획하는 것은 육신의 은사를 진정으로 구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신체적으로 자기를 잘 관리하며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적으로 자립한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고 자금을 잘 관리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성인들은 십일조 내기, 예산 세우기, 투자하기, 소득 중 일정 비율

저축하기, 부채를 이해하기 등에 관한 부모의 제언을 받아들이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가정을 꾸민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기호와 생활 양식, 개성에 맞게 가정을 꾸밀 수 있습니다. 방이나 아파트 또는 집의 한쪽 구석에 책이나 연장 등을 두어 나만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주변 환경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창조 과정에 동참합니다.

6. 타인과 맺은 관계를 발전시킨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은 성인으로 변화하는 명백한 과도기입니다. 그러나 독신 성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는 것만큼 이상적인 일도 없지만, 독신들은 친 형제 자매, 사촌,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워드 또는 지부 회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공통된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7. 정서적 관계를 맺는 기술을 익힌다

우정을 나누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초대에 응하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일은 모두 성인들이 하는 사교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찰을 극복해내고, 솔직한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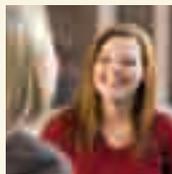


일부 청년 독신 성인들은 여러 사람과 부딪치며 지내는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불화를 겪거나 두려움에 대한 방어책으로 술이나 마약, 외설물, 폭식 또는 불건전한 행위에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우정을 서서히 발전시키며,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마찰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 사교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공동체를 형성한다

참으로 청년 성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식사에 데려가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교육을 하고,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교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등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9. 다음 세대에 기여한다

사람이 보살핌을 받는 단계에서 보살피는 단계로 넘어갈 때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압니다. 청년 성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관심을 다음 세대에 전함으로써 수많은 삶을 축복합니다.

조카들이나 이웃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와 청소년들과 함께 정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양쪽 세대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또한 직장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업에서 공헌하거나 선교 사업을 하고 교회 구도자들과 친해짐으로써 다음 세대에 기여합니다.

10. 영적인 책임에서 성장한다

성인의 일과를 수립할 때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봉사, 성전 예배에 대한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합니다. 성전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그리고 각 세대 간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심을 분명히 해 줍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환영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길에 앞장서서

먼저 교회에 가입하여 가족 사이에 위대한 변화를 이끈 사람은 바로 칼데론 가족의 아이들이었다.

멜리사 메릴
교회 잡지

가 족에게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은 바로 칼데론의 자녀였다. 열다섯 살인 자레드가 맨 처음 교회에 가입했고, 1년 후 열세 살인 여동생 앤지가 뒤를 이었다. 부모님은 앤지가 침례 받고 3년 후에 교회에 들어왔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이 바뀌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2002년, 한 가족 회원이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했고 그 후 수개월 간 칼데론 가족은 선교사들을 집으로 꼬박꼬박 초대해 더 많은 내용을 배웠다. 칼데론 가족은 그렇게 하면서 큰 변화, 즉 참된 개종을 경험했다.

더 풍성한 영적 생활

가족이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칼데론 부부는 자레드와 앤지가 종교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도덕 교육과 영적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서 염려했다.

칼데론 가족이 발견한 복음에는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었다.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하고 칼데론 형제가 말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 덕분에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서 배우는 내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복음 원리의 참 맛을 보고 간증을 얻게 되었다. 칼데론 자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복음 표준에 대해 배우고 나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커피를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니다.(그 전에는 엄청나게 마셨어요!) 가족이 함께 욕을 하지 않고, 서로 친절한 말을 하며 다른 훌륭한 원리도 지키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치른 가장 큰 희생은 바로 교만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면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진: 멜리사 메릴



그러자 풍성한 축복이 함께했고 개인으로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훌륭하게 발전했습니다.”

침례 결심

자레드 칼데론은 가족 중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했다. 자레드는 2003년 6월에 침례를 받았다. 앤지는 2004년 7월에 침례 받았고 그들의 부모는 2007년 4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칼데론 가족 중 막내였던 제임스는 여덟 살이 된 2007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 후 칼데론 가족은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칼데론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침례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발전하기 위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에는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성전에 가서 가족으로서 인봉을 받는 것도 있었죠.”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인봉을 준비하면서 가족 전체는 시간을 내어 기도와 금식을 했다. 자레드는 또한 몇 차례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2008년 5월 10일, 칼데론 가족은 코스타리카 산호세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자레드는 그날 느꼈던 느낌을

자레드(왼쪽)는 칼데론 가족 중 2003년에 맨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했다. 자레드의 여동생 앤지(아래쪽)는 일년 후에 가입했다. 부모님과 막내 동생은 2007년에 가입했다.



기억한다. “인봉실에 들어섰는데, 영이 너무나 강했어요. 가족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게 옳은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레드의 동생 제임스는 인봉실에 들어가기 전에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일이라고 말한다.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늘 행복합니다.”

성약의 영향

칼데론 가족은 성전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삶에서 많은 부분을 바꿔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의식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앤지는 가족이 인봉 받기 전에 엄마에게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꾸리고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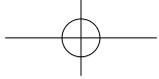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앤지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화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하려는 소망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앤지는 엄마와 함께 집회소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실을 방문해서 조상들의 이름을 찾는다. 앤지는 조상들에게 큰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 역사 사업을 기꺼이 하려 한다.

자레드는 자신이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자레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성전에 가면 사물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죠. 저는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을 더 잘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영을 느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면 사소한 일로 논쟁하는 건 별로 가치가 없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자레드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또한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가족들에게 익숙해져야겠죠.”

큰 행복

칼데론 가족은 성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들은 계속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며, 교회에 가서 부름을 수행하고 서로를 돕는다. 칼데론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일을 함께 하면 우리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칼데론 가족은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성약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칼데론 형제는 가족이 함께 내린 결정들을 회상하며 큰

행복을 느낀다. “복음을 배워 그에 따라 생활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복음의 인도를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족은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습니다.” ■



칼데론 형제는 복음 성약이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말하며 “살아 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 여행을 돌봐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분의 보호가 얼마나 필요할지는 깨닫지 못했다.

페르난도 시 파레자

61 시간 동안이나 버스로 여행한 끝에 청소년들은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 도착했다. 필리핀 마닐라 성전 20주년을 기념하여 떠난 이 여행을 위해 다바오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아홉 달 동안 준비했다. 그 동안 우리는 가족 역사 수업을 듣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족의 이름을 조사해서 준비하고, 성전 여행에 쓸 기금을 모았다. 성전에 도착한 월요일 밤, 우리 일행 63명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버스에서 내렸다. 우리는 성전 숙소에서 음악 발표회와 영적 메시지를 나누며 대규모로 가정의 밤을 열었다. 그런 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부터 청소년들은 이틀에 걸쳐 2천여 명의 조상들을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에게도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 기회가 생겼다. 성전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봉사를 했지만 배가 고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았다. 영이 매우 강하게 임했다. 몇몇 청소년들은 얼굴에서 빛이 발했고,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시간은 쏠살같이 지나갔고,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다시 여행길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롭고 조용하던 버스 안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는 순찰차가 우리를 에워싸고 멈추라고 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앞 방향으로 총을 겨누는 경찰 저격수들이 보였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불과 1미터 앞에 있던 버스의 승객들이 인질로 잡혀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우리 버스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지도자들은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온 힘을 다했지만 몇몇 사람은 공황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 혼란 속에서 경찰은 우리에게 모두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그렇게 무서운 몇 분이 지나고 나서, 한 남자가 버스에서 다 내리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그 말에 따라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빈 건물로 들어갔다.

한 시간도 넘게 우리는 총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건물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버스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인질 두 명과 납치범 두 명이 죽고 총격전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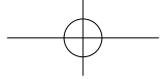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출발했지만 모두 몸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총격이 점점 가시자 우리는 그 순간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 중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우리를 보살피셨던 것이다. 기록하신 분이 함께하시는 듯했다. 혹시 우리가 대신 침례를 집행해 드린 분 중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경전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 밖에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기뻐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계명을 지키며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그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심화: 로저 모스크리스





질의응답

“우리가 따르는 표준은 실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친구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

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릇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표준을 주셨습니다.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축복과 보호를 받습니다.(로마서 8:28; 모사이야서 2:41; 교리와 성약 130:21 참조)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축복을 잃게 되며, 영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해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내적 평안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신의 삶에 문제만 일으킨다는 점을 그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를 피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것과 같은 교회 표준은 교리, 즉 영원한 진리에 기초를 둡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고린도전서 3:16 참조) 이 교리에 기초한 표준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중독이 되거나 해로운 물질을 피함으로써 신체를 돌보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표준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하고 말씀하신 영원한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



순종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노력하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자신감도 더 커집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처럼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순종하여 어떤 축복들을 누리는지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선택의지를 제한하는 것은 표준에 따른 생활이 아니라 좋지 않은 선택 때문임을 여러분의 언행으로 납득시키십시오. 영감 어린 표준은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 주며, 표준대로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줍니다. 제 친구들은 종종 그와 같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매드슨 장로, 21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부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점을 설명해주세요

친구와 급우,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우리 표준에 관해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표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논쟁하는 대신에 우리 교회 표준에 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매우 행복하고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표준 중 몇 가지를 학교 활동에 나가지 않는 변명거리로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학교 활동에 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교회 표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표준을 따를 때 얻는 이점도 말해 주었습니다.

에이린 엘, 19세, 필리핀 다바오



친구들을 활동에 초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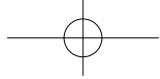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세상의 표준과 다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주 특정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영이 성장하는 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교회 활동에 초대하십시오. 표준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건전하고 즐거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항상 성신의 속삭임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아만다 브이, 18세, 브라질 쿠리티바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세요

작년에 저의 표준을 존중해 주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고리타분하고 표준에

얽매어 있어 재미 없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신이 저와 함께하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명상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런 후 친구들에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도 재미있게 놀 줄 안다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표준은 제 친구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저에게 선사합니다. 사실 그 친구들은 술과 담배에 얽매어 삽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친구들을 변화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 동안은 홀로 지냈지만 그 후 저와 표준이 같은 친구들을 몇 명 알게 되었고,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옳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멜렌 지, 15세, 우루과이 콜로니아

표준은 우리의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의 표준에 대해 그런 인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친구들에게 말해 주지 않으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표준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영혼의 복지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려 주십시오. 표준은 시험을 볼 때 따르는 유의 사항과 같습니다. 유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표준을 따를지 말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친구들은 교회

표준을 확고하게 지키는 여러분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클림 엘, 18세, 필리핀

계명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보호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신체적, 정서적, 영적) 면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말라는 경고가 신체의 안전을 위한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물론 난로를 만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화상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영화를 보거나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선택한다면 고통스러운 “화상”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혹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관심을 덧없는 욕구 충족으로 돌리게 하며,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선택을 할 때에는 그 결과도 같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획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어길 때 선택의지가 있어 가려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란다.” 계명을 지킬 때 제가 원하는 참된 행복이 올 것입니다.

조셉 지, 13세, 미국 유타 주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계명은 짐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발전과 진보와 성장을 위해 주어집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복을 계획하셨습니다. …… 그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는 의식이나 계명을 제정하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36쪽.

다음 질문

“저는 교회에서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3/10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로도 가능).



금고실에 관한 우화



탈매지 장로는 22년 동안 사도로 봉사했으며 오늘날 널리 읽히는 교회 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개조를 집필했다. 탈매지 장로는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엮어 복음 원리를 가르쳐 주는 우화집을 출판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우화는

Improvement Era, 1914년 10월호, 1108~1109쪽에 실린 기사에서 발췌한 이야기이다.

영혼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가치는 대단히 귀중하며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최 근 뉴스 기사에 절도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건은 범죄 관련 보도 중에서도 유별났습니다. 범죄자들은 보석류와 귀중품 취급 도매점의 금고실을 털기로 했습니다. 두 도둑이 세운 계약으로 보나 조심성과 수법으로 보나 이들은 그런 못된 짓에 능한 전문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도둑들은 건물 안에 숨어 들어가 묵직한 빗장 문이 잠기는 밤 시간을

기다리기로 모의했습니다. 강철과 벽돌로 만든 그 거대한 금고실이 탄탄하게 잘 지어졌고 도난방지도 잘 갖추어진 시설이라는 것쯤은 도둑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엄청난 재물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인내와 끈기와 술책으로 성공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번 일처럼 큰 일은 아니어도 아무 탈 없이 여러 번 침입에 성공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실력도 더 늘었습니다.

드릴과 톱, 기타 연장을 포함하여 모든 장비가 완벽했습니다. 육중한 문의 단단한 강철까지도 꺾을 만큼 잘 연마된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금고실에 침입하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금고실 복도에 배치된 무장 경비원들은 튼튼한 금고실 입구를 부지런히 감시하며 지켰습니다.

도둑들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특정 시간에 작동하는 제어장치가 가동되기 전에 그들은 숙련된 사람도 다루기 힘들만큼 까다로운 자물쇠 주위로 구멍을 뚫고 톱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 사이에 악착같이 노력해서 금고실로 들어가 귀중품을 가지고 나올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대담하게 도망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누가 방해라도 하면 서슴없이 살인도 저지를 계획이었습니다.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지만, 도둑들은 이 일에 능숙했습니다. 이들은 도구와 폭약을 사용하여 금고실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빗장을 열고 육중한 문을 밀어 제쳤습니다.

문을 연 도둑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보석으로 가득 찬 서랍들,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진주가 들어 있는 상자들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도 그런 물건을 찾아내고 훔쳐내리라 확신했습니다만 보기 좋게 예상은



심화: 다니엘 루이스

빛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도둑들 눈 앞에는 또 다른 내부 금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것보다 더 묵직하고 견고한 문이 달려 있고, 도둑들이 진땀을 빼며 작업한 이전의 자물쇠보다 훨씬 더 구조가 복잡한 기계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도둑들의 잘 단련된 연장을 산산조각 낼 만큼 품질이 우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멍을 낼 수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영똥한 데 힘을 낭비했으며, 위대한 모든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라는 것은 금고실 바깥 문과 같으며, 그 사람의 성품은 내부 문과 같습니다. 명성은 튼튼한 방어 시설이지만, 공격을 받고 심지어 훼손되거나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어 시설이 지키는 영혼은 안전하며 내적 성품만은 철옹성과 같습니다. ■



강한 성품을 만드는 방법



“성품은 여러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도덕적으로 강한 성품은 인생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때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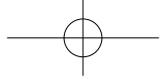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신앙은 여러분을 그러한 올바른 선택들로 인도해 줍니다. ……

성품의 기초는 고결성입니다. 합당한 성품은 영의 지시에 따르는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은 여러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 배운 것, 또는 여러분이 성취한 목표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뢰 받도록 해 줍니다. 의로운 성품은 영적 힘의 토대가 됩니다. 그것은 시련과 시험의 시간 동안에, 심지어는 내리는 결정들이 과중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렵고 지극히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도록 해 줍니다. 사탄이나 그 어떤 다른 권능도 여러분의 성품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점을 간중드립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불순종을 통해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신앙의 행사가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강화된 성품은 신앙을 행사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자신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성품을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순환 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 큰 신앙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주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7쪽.

다음 편에 실린 기사를 읽으면서 올바르게 선택하여 성품을 강화시킨 창남의 이야기를 만나 보십시오.



파티에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야?

잭 톤 탄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종한 나는 때때로 믿음을 지켜 내는 것이 힘들었다. 12월의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연말에 열리는 회사 기념행사에 참석하라는 말을 했다. 걱정이 되었다. 행사장에서 술을

그 바보 같은 믿음 때문에 돈을 포기할래?” 하고 동료는 화를 냈다.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다. 실제로 파티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처지였다. 그런데 문득 경전 구절이 하나 떠올랐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나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찌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이사야 51:12~13)

나는 곧바로 깨달았다. 나는 동료나 직장 상사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다. 또한 이 지상에 온 나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떠올랐다. 그래서 동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 믿음을 선택하겠어. 그러니 너도 그걸 존중해 줘.”

몇 주 후,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직장에서 마지막 날, 동료들과 함께 나는 대화는 훌륭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다른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었다. 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도 말했다.

약 일주일 후, 나는 보수가 더 많은 직장을 얻었다. 새 직장에서는 전임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다.

이 경험으로 나는 계명을 지키면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방법을 마련하신다는 확신을 얻었다.

(니파이전서 3:7 참조) ■

마시는 것이 우리 회사의 문화이기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동료들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부장님까지 나서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얼마 후, 동료 한 명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도대체 파티에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금 당장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나 신경 써. 왜 있지도 않은 세상까지 염려해? 돈을 벌래, 아니면

계속되는 친구들의
압력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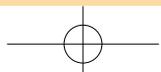


십계명은 열 가지 계명이니



열 가지 제안 사항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1~17 참조)





우리들의 공간



연습과 준비

어느 일요일, 안식일 모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연주할 때 너무 긴장해서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회원들은 잘 연주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리와

성약 38편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이 경험으로 나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이 원리는 악기 연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다른 일에도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적용된다. 예를 들면 기하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열심히 공부하자 성과가 있었고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다. 복음도 이와 같다. 간증 나누는 것을 연습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간증할 때 초조해하거나 주저하지도 않게 된다. 실제로 나는 종종 무신론자인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 지식을 나눈다.

연습을 하면 인생에서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

티파레 시, 15세, 미국 버지니아 주

성찬을 전달하며

집사가 되어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하는 날 나는 계속 마음이 초조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 어떡하나, 잘못된 줄로 가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매주 집사들을 유심히 살펴 보면서 그들은 정말 위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곤 했다.

성찬식은 중요한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향상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다. 집사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경건을 유지하며, 조용히 걷고, 성찬식을 조심스럽게 나르며, 장난치지 않으므로써 다른 사람들이 성찬식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난 실수 없이 첫째 주를 잘 해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떨지 않는다. 대신 성찬을 전달할 때면 경건함과 행복을 느낀다.

나에게는 동생이 넷이나 있다. 나는 동생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동생들은 신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권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신권을 받은 이후 나는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훌륭한 신권 소유자는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며, 일요일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신이 신권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

하오 첸 더블류, 15세, 대만



제일 좋아하는 성구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한일서 2:25)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떠올리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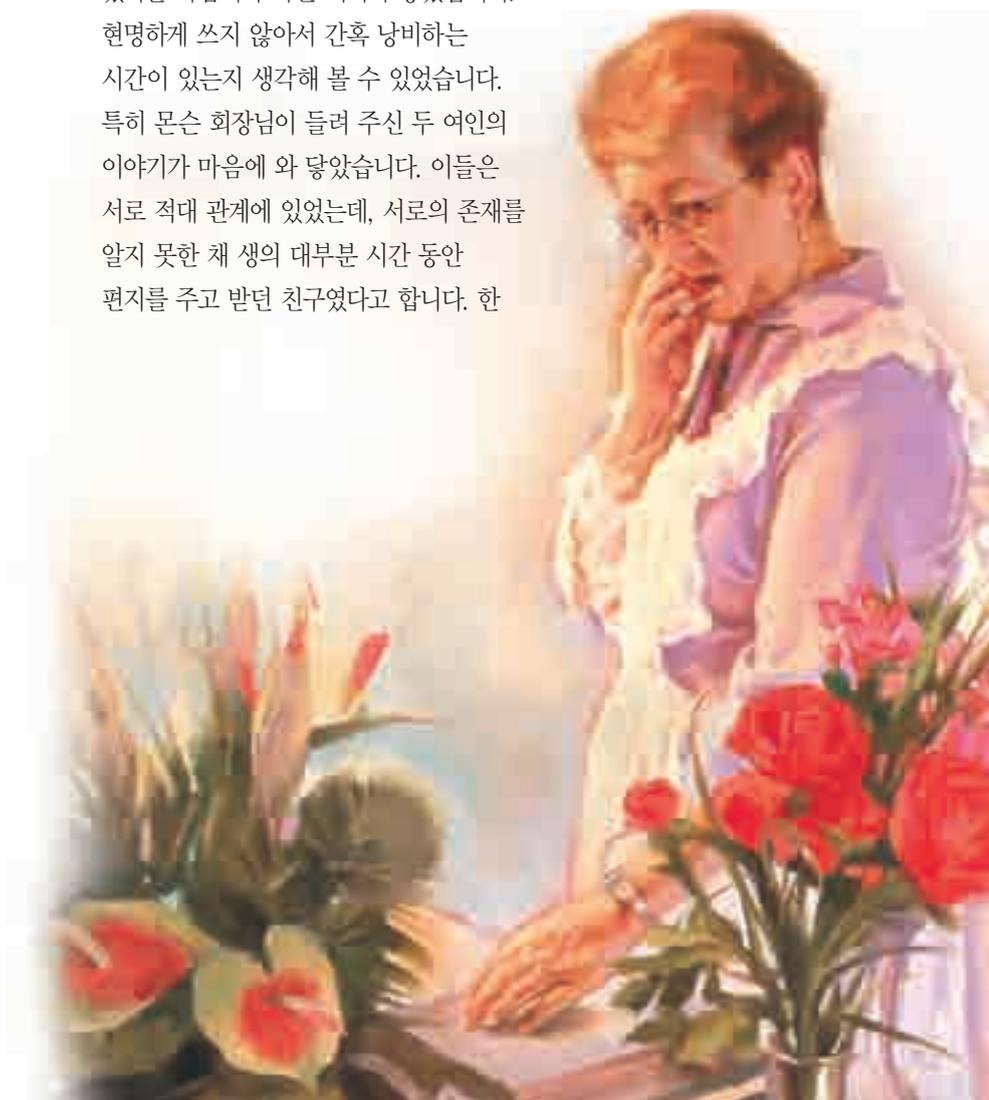
셀레스타 피, 12세, 인도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함

저는 2008년 8월호에 제일회장단 메시지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해 주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기사가 좋았습니다. 현명하게 쓰지 않아서 간혹 낭비하는 시간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몬슨 회장이 들려 주신 두 여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생의 대부분 시간 동안 편지를 주고 받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죽자, 남은 친구가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헛되게 보낸 세월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빅토르 와이, 17세, 에콰도르



이곳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이 곳은 여러분의 페이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청소년들과 나누는 곳입니다. 어떤 읽을거리가 있고 어떤 기사를 기고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복음을 더 잘 이해하여 말씀대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 경험이나 깨달음.
- 직접 찍은 해상도 높은 사진에 성구를 넣은 것.
-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활동이나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을 하면서 얻은 훌륭한 경험.
- 영감을 주는 성구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원할 경우 개인 사진을 포함시킴.
- *리아호나*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어떤 기사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사진 또는 의견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목란에 “Our Space”라고 적고, 여러분의 원고를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동의를 포함시키십시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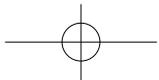
주전으로 뛰고 싶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티머시 헤르조그

나는 축구가 정말 좋다. 지금 나는 열네 살인데, 축구는 다섯 살 때부터 해 왔다. 운동경기를 통해 이따금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시기에 내가 세운 높은 표준과 가치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한 힘든 결정 가운데 하나는 일요일에 축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아홉 살 때 나는 우리 팀을 이끄는 하쉬엠 코치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다. 하지만 나는 학교 친구와 같은 팀에서 뛰고 싶어서 팀을 바꾸려고 했다. 그 팀은 정말로 경쟁이 치열한 팀이어서 들어 간다 해도 열정을 다해야만 했다. 많은 친구들이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나는 몇 차례에 걸쳐 치른 예비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드디어 마지막 심사날이 다가왔다. 힘껏 기량을 펼쳐 보였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최종 심사가 끝난 후 코치님이 나와 엄마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 팀에서 뛰면 좋겠다고 말해 주셨다.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코치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일요일에도 뛸 수 있니? 대회에 나가려면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따금 일요일 경기도 있을 거란 말이지.”

엄마는 내가 직접 대답하게 하셨다.

“안 돼요, 코치님. 전 일요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아요.” 옳은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은 내가 그 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도 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내가 그 팀에 발탁되었다고 알려 주는 전화는 결국 오지 않았다. 나는 무척 실망했다.

대신에 나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역 축구 팀에 들어갔다. 그 팀에서 첫 해를 멋지게 보내고 성과도 좋았지만, 두 번째 해에는 간신히 버티 나갔고 경기에서 집중력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는 좌절했다.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거의 항상 졌다.

어느 날 정말 형편없는 경기를 치른 후, 하쉬엠 코치님이 경기장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셨다. 코치님이 이끄는 팀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코치님은 내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셨다. “그저 그래요.” 하고 대답하며 옛날 팀 동료들이 그립다고 말했다. 하쉬엠 코치님은 경기를 지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늘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았다.

“다음 번 경기에 나갈 때 우리 팀 초청 선수로 뛰는 건 어떻겠니?” 하고 하쉬엠 코치님이 물으셨다.

나는 기쁘게 대답했다. “정말 좋아요!”

하쉬엠 코치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다. “잘됐군.

근데 물어볼 게 하나 있단다. 일요일마다 뛸 수 있니?” 갑자기 뭔가에 머리를 맞은 듯이 어지러워졌다. 지난번에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때까지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내 대답을 기다리셨다. 나는 다시 하쉬엠 코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일요일에는 경기를 못해요.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하쉬엠 코치님은 잠시 그대로 서 계셨다. 코치님은 대답을 하는 내 얼굴에 희망의 빛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셨다.

코치님은 이렇게 말하셨다 “아니야, 괜찮단다. 아마 우린 일요일 결승전까지는 오르지 못할 거야. 네가 우리와 함께 뛰었으면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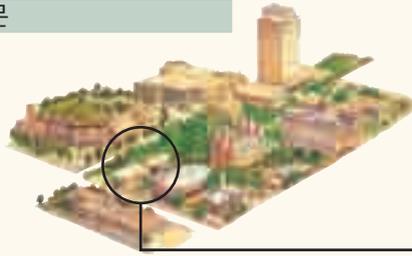
나는 곧 하쉬엠 코치님의 팀과 함께 연습에 들어갔다. 팀원들은 정말 열심히 뛰었고, 다시 돌아온 나를 기쁘게 맞아주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우리는 모든 시합에서 이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모두 최선을 다했고, 멋진 시간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하쉬엠 코치님 팀의 정식 선수가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일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다른 날 경기에서 내가 팀을 위해 활약하는 것에 고마워했다.

나는 지금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을 소유하고 있다. 여전히 축구 경기에서 뛰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경기에 나가지 않는다. 그건 나에게도, 내가 활약해 온 팀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건 내가 일요일에 운동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템플 스퀘어에서 중요한 장소 한 곳을 둘러봅시다.



북방문자 센터



채드 이 퍼레스
교회 잡지

캐민과 이카니(“콜비”)는 선지자들에게
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템플 스퀘어에
있는 북방문자 센터를 방문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콜비와 캐민은 실물 크기로 만든
경전 속 선지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각자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샤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주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샤야 9:6)



몰몬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약 40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몰몬경 시대를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편집하여 금판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도 덧붙였습니다.
몰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 믿어야”(몰몬서 7:5)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기록을 아들
모로나이에게 주었으며, 모로나이는
금판을 땅에 묻었습니다.



모로나이가 사망한 후, 수백 년 동안 지상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1823년에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이 묻힌 장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조셉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금판을 번역하여 몰몬경으로 출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약이며, 몰몬경은 또 다른 성약입니다.





조셉 스미스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16명의 교회 회장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배운 콜비와 캐민은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방문자 센터 꼭대기 층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대한 예수님 상을 보고, 녹음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가르친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관해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상과 로툰다

- 그리스도 상은 북방문자 센터 2층 로툰다(역주: 고전 건축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 평면 위에 돔 지붕을 올린 건물 혹은 내부 공간)에 있으며, 둥근 천장이 이곳을 덮고 있다.
- 그리스도 상 원작은 180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르텔 토르발센이 제작했다.
- 템플 스퀘어에 있는 그리스도 상은 이태리산 흰 대리석으로 조각되었다.
- 로툰다 벽 전체는 우주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장식되어 있다. 그리스도 상 뒤에는 지구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스도 상 바로 위에는 북극성이 있으며,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 같은 별자리도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로툰다에 그려진 별들은 1830년 4월 6일 자정에 북반구 하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날이다.(교리와 성약 20편 참조)
- 둥근 천장은 바닥에서 14미터 높이에 있다. 길이가 51미터나 되는 이 벽화를 그리는 데 568리터 이상의 페인트가 사용되었다.



인터넷에서 더 찾아 보세요

www.friend.lds.org를 방문하면 콜비와 캐민이 방문자 센터를 탐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새 옷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앨마서 34:38)

실화에 근거
앤지 버그스트롬 밀러

마리아는 예쁜 새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일요일에 입을라고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흰색 리본이 여러 개 달린 이 분홍색 치마는 마리아가 여태껏 입어 본 옷 중에 가장 예뻐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싱긋 웃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치마가 부채처럼 펼쳐지게 또다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친구들에게 새 옷을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일요일에 마리아는 모든 친구에게서 옷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참석한 마리아는 산체스 자매님의 공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옷에 달린 리본들을 만지작거리며 놀았습니다.

성찬식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말씀하는 간증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리본들을 하나하나 풀고 다시 매고 또 풀고 또 매느라 분주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마리아는 예배실을

떠나는 몇몇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울어요?” 하고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영을 느껴서 그런단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영에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야. 정말 훌륭한 간증이었어, 그렇지?”

마리아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마리아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오늘 교회에서 영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영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거든. 주의를 기울여야만 알아차릴 수 있어.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해. 그래야 영을 느낄 수 있단다.”

마리아는 그날 자신이 교회에서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새 옷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마리아는 예쁜 분홍색 옷을 또 입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산체스 자매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성찬식 모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마음속으로 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자랑하려고 교회에 간 것이 아니어서 마리아는 기뻐했습니다. ■



“성찬식 모임

동안 ……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행동[을]

…… 삼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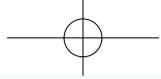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찬식과 성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8쪽.

출판: 나탈리 앤서니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이앤 엘 멩검

“빛 이 있으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갑자기 밝은 빛이 암흑으로 덮인 우주에 쏟아졌습니다. 빛은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분들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에게 지구를 창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함께 음식과 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지상의 집에서 지낼 때 필요할 모든 것이 마련되도록 주의 깊게 계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권 권능으로 여러 물질을 조직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분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돌과 흙과 물이 있는 행성을 창조하시고 물을 모아서 바다와 대양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산과 언덕과 계곡이 바다 옆에서 솟아 올랐습니다. 땅과 물 위 상공에는 하늘과 구름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지상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자라나서 과즙이 많은 오렌지 나무와 새들이 쪼아 먹는 딸기 덩굴, 초원을

덮는 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식물이 자라도록 온 종일 빛을 비출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밤에도 빛을 비추도록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지구가 궤도를 따라 회전하게 만드시어 날과 계절과 일 년이라는 기간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해엄을 치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모든 새를 창조하셔서 창공을 채우셨습니다. 고래가 해엄치고 바닷물 속에서 해파리가 너울거렸습니다. 오리가 물장구를 치고 펠리컨은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캥거루도, 꼬리로 나무에 매달리는 원숭이도 창조하셨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모든 곤충과 기어 다니는 모든 도마뱀, 으르렁거리거나 질주하거나 쿵쿵거리는 모든 생물을 여호와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부모를 닮은 아기를 낳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낼 집으로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 첫 번째로 지상에 내려와서 육신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과 바다와 하늘과 구름이 있는 행성을 만드셨습니다.

부모를 위한 제언

이 기사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자녀와 함께 그 부분을 읽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는 것은 어떻게 고려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식물이 자라도록
빛을 비출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어 그들의 자녀와 후손이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상의 부모를 통해 육신을
얻습니다. 지상으로 오는 모든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생활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

* 구약에서 예수님은 “여호와”로 불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지상으로 오는 모든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왼쪽부터: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리 그림의 세부 확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공, 지구 사진: © CORBIS; 곤충 사진: © GETTY IMAGES, 씨앗 사진: 존
루크, 삽화: 샘 로울러,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우리들 이야기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엄마가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저를 데리러 오시는 걸 잊어버릴까 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막 시작되기 전에 저는 울지 않게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잊지 않고 저를 데리러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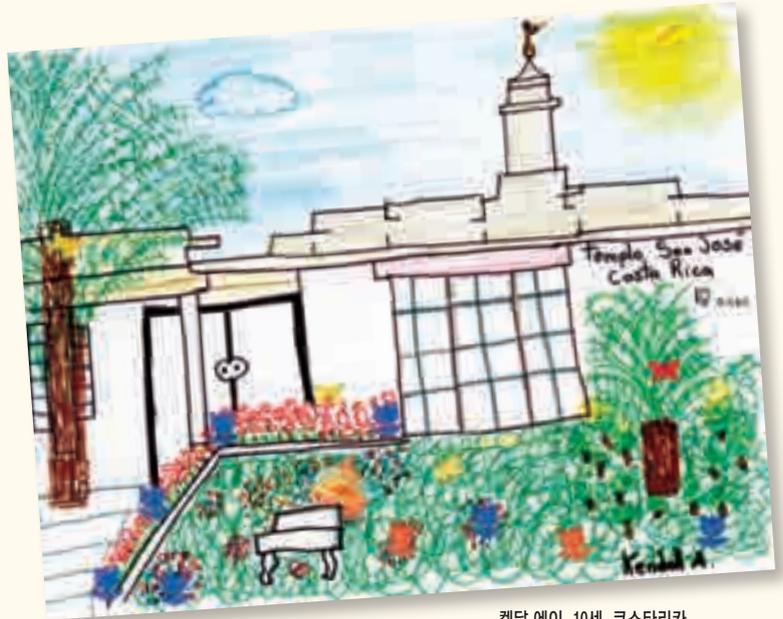
기도를 하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고 울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탄, 7세, 대만



서 말레이시아에 사는 열살 난 에디 엘은 학교 친구나 교회 친구들과 함께 농구와 배드민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에디는 2008년도 배드민턴 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디는 뉴스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동물원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도 즐겁게 참석합니다.

66 리아호나



켄달 에이, 10세,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에 사는 세 살 난 야로슬라프 에프는 리아호나에 있는 어린이날을 무척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어 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야로슬라프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카이론 에이, 5세, 필리핀

우리는 디오네시아

고모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배운 것을 나누고 나서 교회 가족 역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마르코스 엘리아스, 마르코스 에마누엘 엠, 10세,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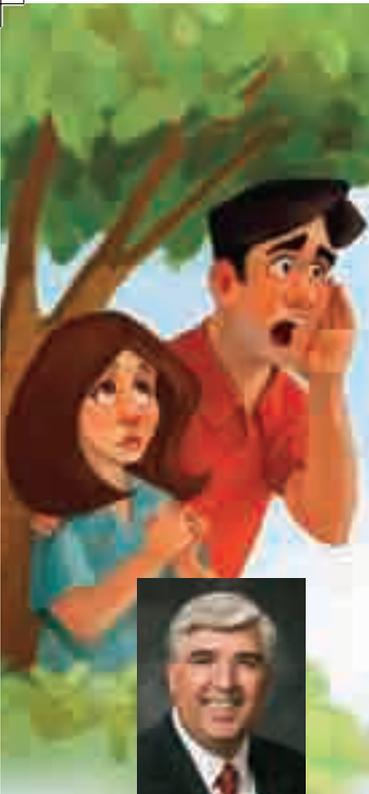


우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써 주세요. 우편물로 보낼 때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칠십인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세요

제가 아홉 살이었을 때 포르투갈 쿠임브라에 있는 우리 집에서 가족모임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친척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하셨고, 모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른들이 정신 없이 바쁜 틈에 저도 재미있는 일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근처에는 몬테구 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낚시를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내키지 않아서 저는 네 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께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모님은 그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둑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멋진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낚시를 하고, 여동생에게는 강물에 던지며 놀 수 있게 돌맹이를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여동생과 제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차를 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몇 시간 후, 제 낚시 도구가 없는 것을 발견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찾아 강둑을 헤매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우리를 찾고서 안도하셨지만, 저 때문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부모님 없이 강가에서 노는 일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린 여동생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저는 성신이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은 제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낚시를 가면 안 된다고 알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여동생과 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성신께서 속삭이는 말씀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샌드라 태너와 크리스티나 프랜코

구주와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명칭이자 칭호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망을 경험합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과 몸은 분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과 영은 재결합되어 다시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희생은 속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십니다.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 보이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각자를 위해 나타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번 달 성구는 속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니신 위대한 사랑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즉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2010년 2월 경전 일지

신약전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이 성구가 참된지를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구를 암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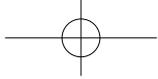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분만의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니다.

- 초등학교 노래 “아들 보내셨네”(어린이 노래책, 20~21쪽)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노래를 배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보이기 위해 노랫말대로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 오른쪽 페이지에서 퍼즐을 잘라내어 맞추기를 합니다. 이 퍼즐은 속죄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줍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이 성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한 일을 일지에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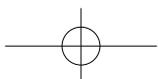


속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지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십일조 가장 훌륭한 선택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함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제3니파이 24:10)



2. 송아지를 기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먹이를 주며 잘
돌보아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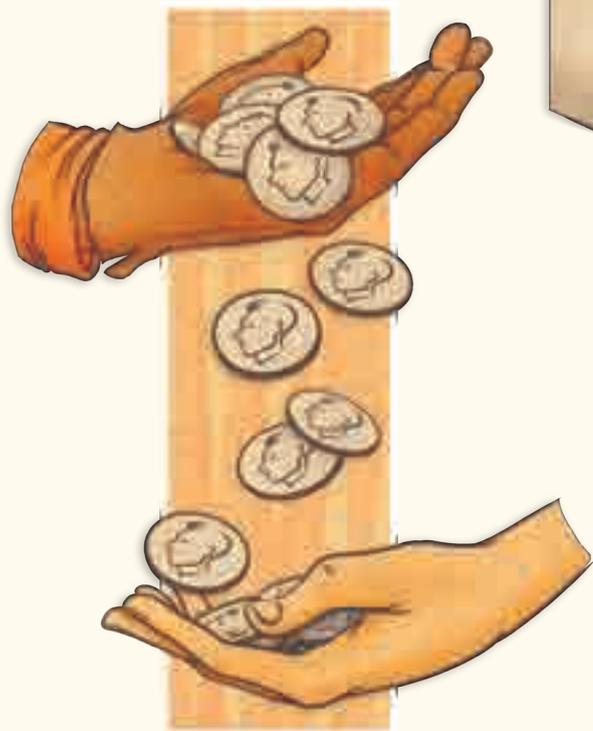


1. 제가 어릴 때 이웃이 갓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3. 아빠가 송아지를 파시던 날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아지가
보고 싶겠지만 힘들게 일한 보상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삽화: 데이비드 하먼



4. 아빠는 집에 돌아오셔서 은화 20달러를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모두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6. 일요일 아침, 저는 교회에 가기 전에 은화 2달러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십일조를 내려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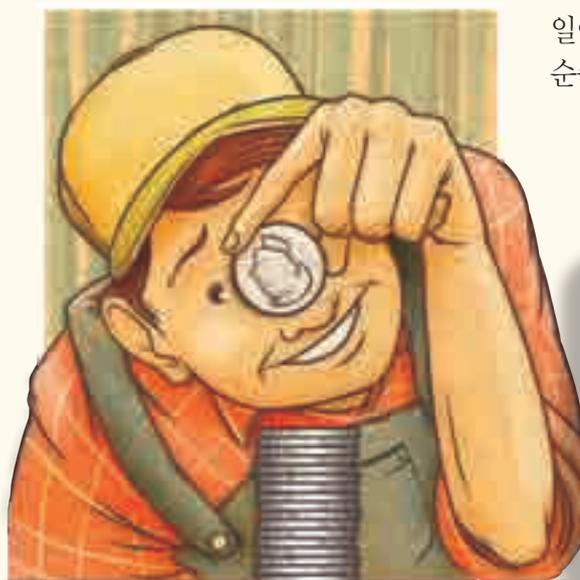


7. 십일조를 감독님께 드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순종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8. 엄마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를 내서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시며 십일조가 가장 훌륭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200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5. 동전 하나하나를 세어 보고, 문질러 윤을 내는 내내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를 위한 도움말

십 일조를 바치면 축복을 받습니다.(제3니파이 24:10~12 참조)
여기에 나오는 활동을 사용하며 십일조에 대해 가르칩니다.

- 차일드 장로의 경험이나 부모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가르칩니다.

- 다음 쪽에 나오는 숨은 그림이나 직접 고안한 활동을 하면서 십일조로 얼마를 내는지 가르칩니다.
- 다음 쪽에 나오는 십일조 병 만들기나 직접 고안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십일조를 내도록 격려합니다.
- 73쪽에 나오는 미로 놀이를 하면서 십일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십일조 병 만들기

파울라 위드

준 비물: 작은 유리병, 색 고무줄
또는 털실, 색지

1. 병을 씻어 말린다.
2. 병 바깥 부분을 고무줄로 예쁘게 꾸민다. 고무줄이 없다면 끈이나 털실을 사용한다.
3. 색지를 크고 동그랗게 두 장 오려서 병 윗부분에 올려 놓는다. 고무줄로 가장자리를 둘러 고정시킨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보기 좋게 손질한다.
4. 색지로 만든 뚜껑에 돈을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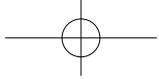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사진: 크레이그 다이어먼드; 삽화: 에덤 코포드



동전 찾기

마 리아는 동전 열 개를 얻었는데 그만 공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린 동전 열 개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마리아는 이 동전들 중에 몇 개를 십일조로 바쳐야 할까요?





십일조 미로 놀이

애나 컬프

1. 십일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돈이 생기면 십분의 일을 바치지요. 애말은 동전 10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개를 십일조로 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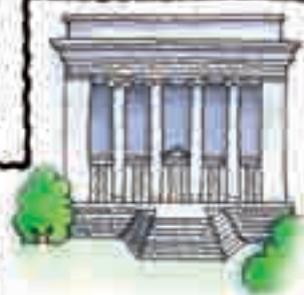
2. 애말은 십일조 용지를 썼어요.



3. 십일조 용지와 동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4. 그리고 봉투를 감독단 또는 지부 회장단 일원에게 드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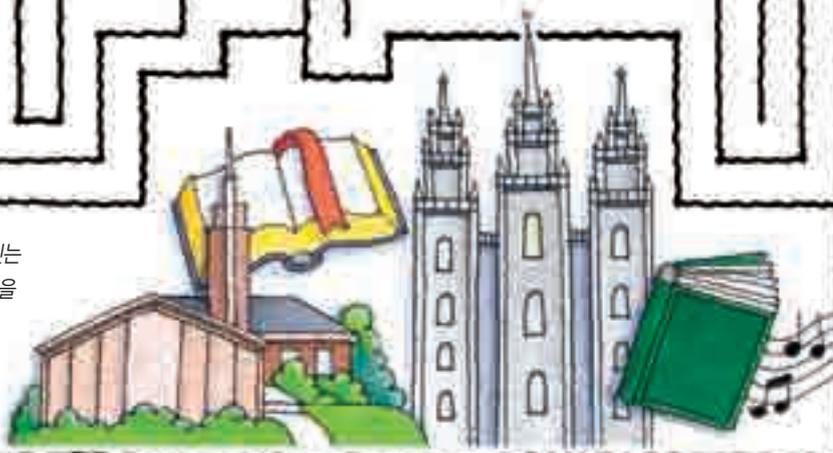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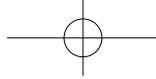
5. 십일조로 모인 돈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집니다.



6. 교회 지도자들은 돈이 어디에 가장 필요한지를 결정해요.

7. 십일조는 성전과 집회소를 짓는데 사용돼요. 찬송가와 경전 등을 출판하는 데도 쓰이지요.





교회 소식

기록 보관

헤더 휘틀 리글리
교회 잡지

교회 역사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로비 근처에서 정성스럽게 보존되고 있는 일지와 신문, 가족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리고 로비 벽 높다란 곳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다음 글귀를 보게 된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교리와 성약 21:1)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거룩한 명을 받았던 183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서와 직물 및

교회 역사부에는 교회와 회원들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기타 물건 형태로 된 광범위한 교회 유물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보존되어 왔다. 이는 작지만 헌신적인 관리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회 유물 보존

교회 유물 관리자들의 주된 관심은 자연적인 노후 과정을 멈추게 하여 유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교회 역사 도서관 4층에 있는 최첨단 보존 연구실 관리자들은 수십 년 된 종이가 작게 찢어져서 파손 위험이 생긴 부분에 일본제 반투명 종이를 덧대는

일을 하거나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진 원판(음화)을 살려내는 일 등의 작업을 한다. 수선되거나 복원된 작품은 이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꽂이에 두거나 온도 및 습도가 정밀하게 조절되는 보관실에 따로 두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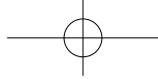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금속과 목재에 광택을 내고, 마네킹과 누비 이불, 전시물 받침대와 지지대를 만든다.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 중 일부는 보관 용도로 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교회 역사 유적지로 보내진다.

교회 유물 관리자인 크리스토퍼 맥카피는 이렇게 말한다. “보관이란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래 지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진: 웨더 엔더슨

크리스토퍼 맥카피 형제가 19세기 문서 원본에서 테이프를 제거하고 있다.



교회 유물 관리자들은 선지자의 일지에서부터 개인 가족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맥카피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관할 만큼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면, 내가 잘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집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문서로 남겨지지 않은 삶은 빨리 잊혀질 수 있는데, 문서에서 일부가 소실되거나 해를 입는 것도 그와 똑같은 비극이라고 맥카피 형제는 말한다.

교회 역사 박물관 유물 관리자인 제니퍼 해들리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보관해야 한다는 지시는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보관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존

보존 연구실은 책, 일지, 신문, 스크랩북,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를 취급한다. 각 물품은 상태에 따라 고유하게 다룬다.

넓은 연구실에는 절단기, 황금 압인기, 채널 바인더, 초음파 인캡슐레이터 같은 흥미로운 도구와 기계들이 각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방에 놓여 있다.

종종 책 표지를 제거하고 책의 등을 깨끗하게 수선한다. 문서에서 찢어진 부분은 종이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내구성을 높이도록 품질 좋은 일본제 종이로 채워진다. 유물 관리자들은 밀전분과 물로 만든 반죽을 풀로 사용한다. 가능한 한 본래 모습을 많이 유지하면서 현존 구조를 강화시킨다.

맥카피 형제는 “우리는 완전히 새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품의 본 모습을 유지시키려고 애쓰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원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문서를 보존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척이다. 종이를 여과된 탈이온수에 담근 다음, 마지막으로 알칼리수에

담근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과 화학 약품들이 종이 안에 있는 먼지를 빼내고 산을 중화시켜 노후를 지연시킨다.

직물 및 물건 보존

보존 관리자들은 직물, 가구, 그림 등 교회 역사와 관련된 물건을 보존하는 책임을 진다.

해들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에는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전 세계 교회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지요.”

박물관은 역사적인 의상, 서적, 그림, 모형, 그리고 마구 안장이나 도구들, 심지어는 솔트레이크

태버내를 내부 장식 모형과 같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물건을 다루는 보존 관리자들은 새로운 물건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맞을 때 창의적으로 일해야 한다.

해들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각 작품은 각 개인처럼 독특합니다. 작품마다 특별한 필요 사항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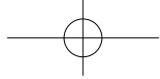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각 물건은 면밀하게 연구된다. 보존 관리자는 종종 서로 협력하여 어떤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지를 결정한다. 대부분은 물건을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 노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다 한다. 때때로 이러한 조치에는 산을 제거하는 작업, 원래 구조를 보강하는 작업,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칠 작업, 물건을 넣을 상자 제작 또는 구조를 지지하고 형태를 유지할 지지대나 받침대를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먼지 제거만 필요할 때도 있다.

한번은 개척자 시대에 사용하던 여성용 모자의 실이 풀려 있었는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하고 둥근

사진: 웨인 앤더슨



캐시 카던 자매가 보존 연구실에서 종이를 손질하고 있다.



심을 대고 꿰맸다. 이에 더하여 해들리 자매는 모자 자체에 손 바느질을 하여 동일한 실크 조각을 붙였다.

“다용도 보존 관리자”라고 자신을 묘사한 제임스 레인즈는 서류, 직물 또는 그림 이외의 물건들을 취급한다. 산탄으로 채워진 가죽 회초리는 손잡이가 찢어지면 유연성을 잃고, 납이 빠져나가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유물 관리자는 남아 있는 산탄을 제거하고 원래 모습과 유연성을 회복하도록 손잡이에 아크릴 막대를 끼워 넣었다.

“이는 공예품을 당대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일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세계 과거와 연결되는 고리를 제공해 주지요.”라고 해들리 자매는 말했다. ■

홍역 퇴치 단체를 돕는 회원들

라이언 쿤즈
교회 잡지

2003년에 교회가 Measles Initiative and Partnership(홍역 퇴치 단체)에 가입한 이래,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이 홍역 퇴치 노력에 일조해 오고 있다.

대략 5만 6천 명에 이르는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 32개국에서 육십만 시간 이상을 봉사해 왔다.

2001년, 미 적십자사와 국제연합재단, 미국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는 2010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홍역으로 사망하는 인구를 90퍼센트까지 감소시킬 목표를 가지고 홍역 퇴치 단체를 창설했다.

제일 회장단은 홍역 감염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의 교회 회원들에게 지역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2008년에 홍역 예방 백신을 맞은 후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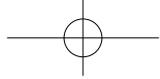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지도자들의 지시 아래 홍보 및 예방 접종 지원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3백만 달러 기부 등 홍역 퇴치 단체 가입 약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쌍이 넘는 부부 선교사들이 이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 보건 당국, 기타 제휴 조직과 협력하여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캠페인에 필요한 자원 봉사를 다방면으로 제공한다.

교회 회원들은 백신 구입이나 관리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웃에게 정보를 나누어 주고, 거리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걸고, 예방 접종 장소에서 도움을 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홍보하는 일을 한다. 한 젊은 귀환 선교사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캠페인을 위해 광고 음악을 하나 작곡했다. 이 노래는 캠페인을 벌이는 대부분의 국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28개 언어로 번역되어 불리고 있다.

단체가 창설된 2001년부터 2008년 12월에 이르기까지 대상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600만 명이 예방 접종을 받아 전 세계 홍역 사망자가 74퍼센트로 감소했고, 아프리카에서만 89퍼센트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2000년에 75만 명이었던 홍역 사망자가 2007년에는 19만 7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2010년 말까지 전 세계 사망자를 10만 명 이하로 줄인다는 국제연합의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

이 캠페인으로 수많은 삶이 개선되었지만, 모든



뉴스 속에서

혜택이 신체 건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나미비아에 사는 교회 회원인 올라비 언더페디바의 누이는 2006년에 열린 지역 캠페인에 자원 봉사를 신청했다. 어느 날, 그녀는 올라비에게 자신이 갈 수 없으니 대신 자원 봉사 현장에 가 달라고 부탁했다. 올라비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준 교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교회에 가입한 올라비 형제는 2009년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섬들 중 하나인 카보베르데는 교회 회원들이 자원 봉사를 신청한 많은 나라들 중 하나다. 2009년 3월에 열린 캠페인에서 회원들은 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카보베르데에 사는 6백 명 이상의 회원들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4천 2백 시간을 자원 봉사했다.

카보베르데 프라이어 선교부 회장단 제2보좌인 아이시어스 바레토 다 로사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지부가 있는 여섯 개 섬의 회원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홍역 프로그램은 분명 우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홍역은 호흡기관을 공격하고 발진, 폐렴, 뇌염 및 기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염병으로,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홍역 퇴치 단체에 따르면, 2007년에 매일 약 540명의 어린이들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 영양실조 및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홍역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한 명당 미화 1달러가 채 안 드는 비용으로 백신을 맞고 홍역을 예방할 수 있다. ■

인터넷 동영상으로 복음이 주는 희망을 실어 나르다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에 설치된 후기 성도 공식 채널, 몰몬 메시지가 머지 않아 10개 이상의 언어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영어로 된 첫 번째 몰몬 메시지 동영상은 2008년 8월에 나왔으며, 스페인어는 2009년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앞으로 몰몬 메시지는 2010년 1분기 말까지 한국어, 광둥어, 독일어, 러시아어, 북경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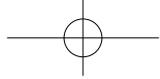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교회 시청각부 관리 책임자인 데이비드 닐슨 형제는 “몰몬 메시지는 짧고 영감 어린 영상 메시지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여기 마련된 영상들은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과 복음 메시지를 나누도록 회원들을 격려하고 강화시켜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교회가 제작한 3, 4분짜리 영상은 일반적으로 총관리 역원과 보조 조직 지도자의 영감어린 말씀을 담고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시청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권고한 “가장 중요한 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청소년에게



몰몬 메시지를 곧 10개 이상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행복을 찾는 방법에 관해 조언한 “청소년에게 주는 권고”, 그리고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우리



인생에서의 여인들”을 담은 영상이 이미 선보인 바 있다.

물론 메시지는 교회 지도자의 말씀 외에 교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희망을 찾음”이라는 영상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공격 당시 살아남은 빅터 구즈먼이 절망 가운데서 평안을 찾는 여정을 보여 준다.

물론 메시지는 2009년 9월 20일에



시청자 수가 5백 4십만이 넘었고 유튜브의 “비영리 활동” 범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 20위 내에 들었다. 각 영상 조회 수는 보통 약 2십만 회에 달한다.

동영상은 LDS.org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그곳에서 시청자들은 이전에 게시되었던 영상 메시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닐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더 많은 회원들이 비회원들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회원들이 교회가 진실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개정된 개인 발전 프로그램

본 부 청년 회장단은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인 발전 프로그램 자료를 개정했다.

분홍색 표지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인 발전 소책자에는 2008년 말에 추가된 여덟 번째 가치관인 정결에 대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치관 활동은 동일하지만, 일부는 오늘날의 흐름에 더 맞추고 성전 성약에 더 초점을 두도록 약간 변경되었다.

청년 표창 메달에는 이제 성전 침탑에 더하여 조화, 협동, 일을



청년 표창 메달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암시하는 꿀벌과 사랑, 신앙, 순결을 나타내는 장미, 그리고 명예 및 성취를 나타내는 월계관이 그려져 있다. 장미 한가운데 박힌 작은 루비는 새로운 가치관인 정결(잠언 31:10 참조)을 상징한다. 또 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모두 완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추가 자료에는 새로운 주제 포스터와 경전 리본들이 있다. 리본은 가치관 경험 및 프로젝트를 달성했을 때 주어진다.

이 자료들은 현재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발행되었으며, 2010년 초까지 51개 언어로 더 발행될 것이다. ■

세계 단신

베드나 장로가 스코틀랜드 의원들을 만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9월에 스코틀랜드 의원들과 두 시간 동안 만나, 스코틀랜드 회원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문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에든버러에 있는 홀리루드 국회의사당에서 마련된 이 모임에는 스코틀랜드 국회의원 다섯 명이 참석했다. 베드나 장로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아일랜드도 방문하여 여러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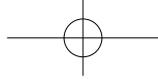
새로운 지역 회장단이 발표되다

제일회장단은 2009년 10월부터 변경되는 태평양 지역 회장단을 발표했다. 2008년 8월부터 지역 회장으로 봉사해 온 칠십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스 벅스터 장로는 최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수술을 받고 교회 본부에서 일하도록 다시 지명 받았다. 새로운 지역 회장으로는



사진: 존 벅스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스코틀랜드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애독자 편지

내 삶을 변화시킨 리아호나

저는 열네 살 때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리아호나를 읽어 왔습니다. 리아호나는 참으로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새로 침례 받는 회원들에게 곧 바로 리아호나 구독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르미스 곤잘레스, 베네수엘라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리아호나는 제게 지식을 주었고, 이 지식은 제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사업을 준비함”(2008년 10월호, 친14쪽)과 “여러분이 물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2009년 1월호, 44쪽)에서 읽은 이야기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제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힐버트 에이 구즈먼, 필리핀

평화의 영

저는 2008년 12월호 리아호나에 있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최고의 성탄절”, 2쪽)을 읽고 관용과 평화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생각은 온통 그리스도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크나큰 빛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리아호나에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아노 룬슨 프레스티스, 브라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가, 제1보좌에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제2보좌에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가 봉사하게 된다.

과테말라에서 봉사하는 후기 성도 청년들

미국 워싱턴디시의 후기 성도 청년들이 키크치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2009년 8월, 과테말라에서도 외딴 지역인 폴로치 벨리에 모였다. 그들은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한 중학교와 도서관을

짓고, 교사를 훈련하고, 비타민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다. 또한 마을 사람들 300여 명을 위해 위생, 영양 섭취, 구강 건강, 개인 재정 및 농업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학교 주방, 건강 진료소 및 지역 상수도 시설 건축을 시작했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여기 나온 몇 가지 제언들은 아이디어를 주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의 쪽수를 나타낸다.

“스키 한 짝”, 12쪽: 공과 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도록 성신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들에게 속삭여줄 수 있다.(45)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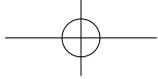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기사를 가르칠 때 가족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저자의 경험에 대해 배운 후,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친절을 느꼈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성전을 바라보며”, 16쪽: 학습자들이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공과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다.(166~167) 기사에 요약된 일곱 가지 원리를 가르친 후에 가족에게 성전 그림을 그리거나 공과에서 배운 것을 그리도록 권유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

“주님을 향해 성장함”, 42쪽: 가족 구성원들이 기사 안에 있는 특정 정보에 귀 기울이도록 하면 공과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69) 함께 기사를 읽으면서 가족이 “주님을 향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구절이나 단어 또는 원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

“마리아의 새 옷”, 62쪽: “여러분이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활용할 때 반원들은 복음 원리를 더 잘 이해하여 간직하는 경향을 보인다.”(89) 자녀들이 이 기사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귀 기울이거나 그에 대해 노래하고, 또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읽어 줄 때 자녀들이 마리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면 손을 들거나 손가락을 코에 올리게 한다. 자녀들이 이 이야기에서 배운 것과 관련된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새로운 찬송가 부르기

데브라 랜덜

□ 일요일, 감독님이 부름에서 해임되는 와드 회원들을 호명하자, 나는 할 일이 없어진 빈 손을 내려다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나는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에서 해임되었다. 그렇게 즐겁게 봉사하던 부름을 내려놓는 것도, 회장단 자매들과 계속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회장단이 호명되자, 영이 임하여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확신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자매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손을 들어 지지를 하면서 그들이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내리라는 것을 알았다. 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고맙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다.

곧 이어 성찬 찬송을 부를 순서가 되었다. 감독님께서 “주 이름으로 상징물”(찬송가, 106장)을 변주곡으로 부르겠다고 하셨다. 오르간 전주를 들으면서 ‘왜 늘 부르던대로 부르지 않지? 그게 훨씬 좋은데.’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마음에 동요가 다시 일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생소한 선율의 아름다움이 영혼에 와 닿았다. 선율이 노래 가사에 훌륭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 음악을 계기로 나는 찬송가의 의미를

늘 부르던 찬송가를 생소한 선율에 맞추어 부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만이 가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다.

순간, 이 찬송가와 나의 해임이 동시에 마음속으로 들어오며 영이 강하게 느껴졌다. 새로운 회장단은 내가

하던 똑같은 일을 하겠지만 나와는 다른 손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할 것이다. 찬송가 멜로디가 달라져도 노랫말에 담긴 교훈은 동일한 것과 같은 이치다. 나에게는 내 선율에 맞는 새로운 부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복음과 교회 조직은 모든 회원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축복한다. 나는 늘 그 사실을 안다. 우리는 사람을 이끄는 방법과 함께 이끄는 사람을 지지하는 법도 배운다. 이 배움의 과정은 평생 반복된다. 나는 그 성찬식 모임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그것은 바로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

사진: 신화, 조 록 크